



식목일 행사 참석한 경기도 김동연, “오늘 심은 나무가 기후변화 대응의 커다란 씨앗 되길 희망”

제79회 식목일 기념 희망의 나무 심기 행사, 가천대학교 내 산사태피해복구지에서 개최



경기도가 5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성남시와 함께 가천대학교에서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오늘 식목행사가 기후변화 대응에 커다란 하나의 씨앗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경기도는 RE100 선언을 통해 기업, 산업, 도민 생활, 공공 분야에서 RE100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중앙정부가 따라오게끔 하겠다.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경기도 상징목인 은행나무를 식수한 사실을 알리면서 “제주 4.3 항쟁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가 넘는 약

3만 명이 희생됐다”며 “경기도에도 선감학원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는데,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또는 침해된 인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행사가 열린 가천대학교 내 부지는 2022년 8월 9일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발생(1.8ha) 후 복구된 지역이다. 도와 가천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산수유·왕벚나무 등 경관 조성에 뛰어난 7개 수종 2천100여 본을 식재해 훼손된 자연경관 약 5천㎡(0.5ha) 규모를 복구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찬 성남부시장, 최미리 가천대학교수석부총장,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가천

대학교 학생 등 100여 명이 함께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숲을 조성한다는 희망의 뜻과 탄소중립의 의지를 담았다.

식전 행사로는 ‘변화의 중심 기획의 경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다’라는 이번 기념식의 의미를 담은 캘리그라피 공연이 펼쳐졌다. 녹색빛으로 울창한 산과 나무의 중심에 위치한 경기도를 표현하며 이번 기념행사의 상징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려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아냈다.

행사의 기념식수인 은행나무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공식 상징목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대중적인 나무이자 병충해와 대기오염에 강하며, 충성·지조·정령·번영을 상징한다.

이번 행사 외에도 경기도는 식목일을 맞아 도민들에게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한다. 18일 오후 1시 시흥시 오이도박물관, 19일 오전 10시 의정부시 경기도청북부청사 평화광장, 20일 오전 10시 가평군 강씨봉자연휴양림 등에서 천리향과 동백나무 등 5개 수종 모듬 2천여 본을 선착순으로 나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경기 RE100 비전’에 따라 지난 3월 26일 경기도만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스위치 더 경기’를 구체화한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서 경기도는 ‘지구의 열기를 끄다(OFF), 지속가능성을 켜다(ON)’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를 제시했다.

김병상/기자

서울시, 걱정을 행복으로 바꿔주는 마법방울... '해치의 마법학교' 운영

어린이 대상, 해치의 마법방울·색칠 놀이·해치와 속닥속닥 코너 등 다양한 프로그램

“안녕! 나는 서울에 사는 해치야. 힘 들고 울고 싶을 땐, 해치를 불러줘! 내 마법 방울에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힘이 있단다~”

서울시 대표 캐릭터 해치가 걱정, 슬픔, 불안을 집어삼키고 행복을 지켜주는 ‘마법 방울’을 목에 달고 어린이 친구들을 찾아가는다.

서울시는 4월 5일부터 한 달여간 해치(인형탈)가 직접 서울 시내 어린이집, 유치원, 키즈카페 등을 찾아가 어린이들의 고민과 소원을 듣고 마법방울을 통해 행복한 생각을 심어주는 ‘해치의 마법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치의 마법학교’는 ‘해치와 함께하는 마법방울 놀이’, ‘해치&소울프렌즈 색칠 놀이’, ‘해치와 속닥속닥’ 시간으로 구성된다.

‘해치와 함께하는 마법방울 놀이’는 해치 소개와 마법방울 이야기를 듣고, 만지면 행복해지는 마법방울(비눗방울)을 터트리며 뽀뽀하기, 행복해진 만큼 해치에게 마법방울 스티커를 붙여주는 시간이다.

‘해치&소울프렌즈 색칠놀이’는 지난 2월 재디자인된 해치 캐릭터 및 함께 발표된 4명의 소울프렌즈의 ‘컬러링 카드’를 받아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에 색칠을 하는 시간이다. ‘컬러링 카드’는 총 5장으로 각 장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캐릭터 소개와 컬러링 도안이 들어 있다.

‘해치와 속닥속닥’은 어린이 친구들이 한 사람씩 나와 걱정거리, 속상한

일을 해치에게만 살짝 털어놓고, 해치의 마법방울에 슬픈 기억을 가둔 후 행복한 기억으로 바뀌어 가져가는 시간이다.

‘해치의 마법학교’ 참여를 원하는 기관 및 단체는 서울시 공식 인스타그램이나 해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댓글로 신청하면 된다. 해치가 와줬으면 하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정보와 고민거리 등을 댓글로 남기면, 선정해 해치가 직접 찾아가는다.

해치 인스타그램에는 가정에서 직접 출력해 색칠놀이를 할 수 있는 해치&소울프렌즈 컬러링 카드 5종도 게시한다.

해치가 방문하는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에서는 ‘해치&소울프렌즈에게 그림 편지 쓰기’ 시간도 갖는다. 완성한 그림 편지는 현재 접수중인 ‘내가 만드는 해치 콘텐츠’ 공모전에 제출할 수도 있다.

‘내가 만드는 해치 콘텐츠’ 공모전은 화재와 재앙, 슬픔을 막아주고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해치 캐릭터에 각자가 생각하는 서울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FUN하고 힙한 감성을 담아내 ‘모두의 해치’를 만든다는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다.

만 4세 이상 내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연령에 따라 공모 분야와 주제를 확인해 (어린이부 그림, 이모티콘, 숏폼영상, 일반부 애니메이션, 스토리, 인스타그램, 웹툰, 이모티콘, 창작송, 숏폼영상) 4월 24일 18시까지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등 총 333명(팀)을 선정하고 일반부 애니메이션, 인스타그램 부문 등의 우수작은 전광판, 지하철, 게시판, 서울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서울시 공식 매체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하고, 특히 애니메이션, 숏폼 영상 수상자는 해치 크리에이터로 위촉해 향후 해치 홍보콘텐츠 제작 시 지원할 예정이다.

마체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신수라는 해치 고유의 이야기와 해치 방울의 역사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아이들이 공감하기 쉬운 스토리로 풀어 전달하고자 ‘해치의 마법학교’를 기획하게 됐다”라며, “보다 많은 친구들이 해치를 직접 만나고 해치의 마법방울을 통해 걱정거리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이철우 지사, 대구·경북 5개 의대 총장 만나 지역인재 80% 이상 확보 피력

지역인재 2025년부터 점진적 80% 이상 확대, 대구·경북 균형 배정 강조
각 대학 총장, 전공의·대학교수들과 함께 의료대란 극복위한 성명서 수일 내 발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3월 22일 대구·경북 5개 의과대학(동국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에 의대 지역인재 전형율 80% 이상 확대 요청한 데 이어, 4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대학 총장들과 직접 만났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지사는 “경북은 인구대비 의사 수가 전국 꼴찌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출신 학생들이 지역에 많이 남을 수 있는 지역의사와 같은 제도를 추진해 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을 선발할 때 비수도권 지역인재 선발전형율 60% 이상 하라고 권고했는데 우리 지역은 점진적으로 80%까지 확대하고,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능하면 학생

입학 비율을 대구·경북 반반 나눠서 선발해 달라”고 참석한 대학총장들에게 요청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정부 의료대란에 따른 어려움을 전공의, 의과대학 교수들과 함께 극복하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 우려 해소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지역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에서는 2월 6일 의료 개혁 4대 과제에서 지역의 의사로 지역인재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고,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2천 명을 확대해 그중 82%를 지방에 배정했다”며, “도민들

이 안심하고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학 총장들이 힘을 모아 지역의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공공건축 전문성 강화로 도시경쟁력 높인다

제도·정책 변화 동향 등 담당공무원 실무역량 교육



전라남도는 5일 화순 하니문화스포트센터에서 시군 공공건축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제도 및 정책 변화 동향을 공유하고 공공건축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교육을 했다.

교육에선 건축공간연구원의 방재성, 김꽃송이 부연구위원과 양은영 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공공건축 정책과 제도, 건축기획의 이해, 설계공모 운영제도, 공공건축 사례 등 공공건축의 가치와 의미를 강의했다.

전남도가 주최·주관한 이번 교육에는 시군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해 공공건축 제도를 이해하고 최근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교육이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돼 매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이며, 최신 공공

건축 동향 정보 공유가 앞으로의 업무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이번 교육은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 세금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공공건축사업 예산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매년 늘어난 공공건축사업의 예산 절감, 부실공사 방지, 더 나아가 디자인 개선과 품질 향상을 위해 2020년부터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건축 분야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자연에서 도자기가 피어나다 이천에코세라믹스

제38회 이천도자기축제 Icheon ceramic festival 2024

2024.04.25 Thu - 05.06 Mon
이천도자예술큐(에스파크), 사기막골도예촌

무료 입장 · 무료 주차
주최 이천시·이천문화재단, 주관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경상북도의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및 맨발걷기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문화환경위원회
경북도의회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물론 도민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입법 실효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 조례의 제정으로 경북도의 문화·관광 분야 활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

을 받고 있다. 먼저, 2023년 12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도내 산재(散在)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이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이를 위해 2023년 9월 7일 '근대문화유산 재조명과 관광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도내 산재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들의 유무형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북도의 기본계획 수립,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존, 수리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지역의 관광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이어서 지난 11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조례에서는 경북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에서 맨발 걷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확충 및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맨발 걷기를 통해 다양한 중증질환으로부터 회복된 경험담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맨발 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위험물에 의한 피부 손상 등

부상의 위험 또한 상존하고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 걷기길 조성 요구됐다. 조례 제정 후, 경북도는 2024년 14억원(도비 7억원, 시군비 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김천, 안동과 영주에 맨발 걷기길을 신규 조성하고, 구미와 청송에 있는 맨발 걷기길을 개·보수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1시군-1대표 맨발 걷기길 조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도내 풍부한 근대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주문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의 건강증진 및 심신 자유를 위한 맨발 걷기길이 22개 시·군 전

김병삼/기자

차대식 대구북구의회 의장, 『편의증진의 날 홍보 챌린지』참여

차대식 대구북구의회 의장, "우리 모두가 이동권 향상과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이해해, 다 함께 누리는 아름답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밝히

차대식 대구북구의회 의장은 편의시설 인식개선과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의 날 홍보 챌린지』에 참여했다. 해당 캠페인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4월 10일이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편의시설 인식개선과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1회 편의증진의 날 홍보 이미지 및 게시글을 SNS에 업로드 후 다음 대상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차대식 대구북구의회 의장은 (사)지체장애인협회 대구북구지회 김한규 지회장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였으며 "우리 모두가 이동권 향상과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이해함으로써 다 함께 누리는 아름답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다음 챌린지를 이어가 주실 분으로 산격종합사회복지관 안수혁 관장, 대구 북구 지역자활센터 권명수 센터장을 추천하였다.

김동현/기자



대구광역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대구광역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대구시의회는 4월 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난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대구시의회 김태우(수성구5) 의원, 박종필(비례) 의원, 육정미(비례) 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결산검사위원은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20일간 대구시와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반 내용을 살펴본다.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무 운영의 합당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까지 심도 있게 점검하여, 이를 토대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해는 국제 및 지방세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 등의 재정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에 걸맞게 재정이 적정하게 운영됐는지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3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20일간의 임기를 시작한 결산검사위원들은 짜임새 있는 결산검사 진행을 위해 김태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고, 결산검사의 세부 일정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후 4월 22일 결산검사가 마무리 되면, 대구시장과 교육감이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검사의견서와 함께 결산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는 제출된 결산서를 6월에 개최되는 제309회 정례회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안동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결산검사위원에 권기운 의원 선임

안동시의회는 4월 5일 오전 11시 30분 의정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4명을 위촉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의원인 권기운 의원을 비롯하여 김선웅·우영제 세무사와 이윤수 공인회계사로 구성됐다. 활동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이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안동시 재정 전반에 대해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대표위원인 권기운 의원은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었는지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50만 서울시 예비군이 바로 우리의 강력"

김 의장, 5일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5일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자랑스런 50만 서울시 예비군이 바로 우리의 강력"이라며 예비군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정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서울시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예비군지휘관, 여성예비군대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 나의소원에서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고 언급했다며, "바로 수도 서울을 지키는 서울시 예비군이 우리의 강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서울안보 지킴이인 예비군들을 예우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올해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는 예비군에게 수송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이

동편의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의회가 더 열심히 경청하고 제대로, 똑바로 바뀌겠다"라며,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예비군들이 훈련장 입소를 위해 새벽에 대중교통을 두세 번 갈아 타야 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했다.

최광수/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제282회 임시회..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회의를 개최해 제282회 임시회를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예산안 2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제2차 본

회의에서 의결한다. 23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26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김병삼/기자



충남도의회 및 시·군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조례안 입안 및 지방자치법 관련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충남도의회는 5일 의회 회의실에서 충남도의회 및 시·군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약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지방자치 입법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입법담당공무원으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충남도의회와 시·군 의회의 입법담당공무원간 정보 공유 및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연찬회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이 '착한 조례 만들기'

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법제처 조정필 법제교육과장이 '의회 공무원이 알아야 할 지방자치법'을 강의했다. 도의회 이정구 사무처장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의 기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은 의회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힐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성군, 5월 3일부터 5일간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개최

2024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5.3.~5.7.



곳곳에 연둣빛 새순이 펼쳐지는 5월의 초순, 보성에서 열리는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에 가족과 함께 둘러차의 은은한 맛과 멋을 음미하고 즐겨 보는 게 어떨까.

전국 최대 차 주산지이자 차 문화의 본고장인 보성군은 '천년 차(茶)의 유혹 보성의 프리포즈'라는 주제로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보성다향대축제는 47회를 맞아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보성다향대축제는 2024년에서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서 보성차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보성의 역사, 문화를 알리고, 보성의 아름다운 차밭에서 차를 통한 힐링과 휴식을 제공하는 축제라는 의미가 있다.

보성군은 차 문화를 다양하게 즐기려는 시대 욕구에 발맞춰 보성차의 무궁무진한 변신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마련하고 차를 활용한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고자 전 국민에게 프리포즈한다.

△ 보성다향대축제 핵심(킬러) 콘텐츠

개막식은 제47회 보성군민의 날과 함께 보성공설운동장 주무대에서

'천년 차(茶)의 유혹, 보성의 프리포즈' 차 한잔할래요? 2024년 봄, 보성차(茶)가 춘춘(春)다(茶)! "친구야 보성 가자!"

지난 1월 자매도시를 맺은 하동군과 '다원결의(茶園結義)' 설정극(퍼포먼스)을 진행한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보성군과 하동군, 중국·일본 등의 차 문화관을 운영해 아시아의 대표 차를 맛볼 수 있으며, 전통 다례시연, 말차 격투 체험, 차 로스팅 체험, 차 음식 시식회와 대한왕실(家) 다구전 등을 마련해 국내 최고 차 문화 축제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는 데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눈여겨볼 핵심 콘텐츠는 △애프터는 티(Tea) 파티, △보성애(愛) 물들다(茶), △보성티마스터컵, △서울 속의 보성다향대축제 주간, △보성 속의 서울 차(茶) 체험, △보성차 만들기, △찻잎따기 등이다.

△애프터는 티(Tea) 파티는 다양한 방식으로 만든 보성차와 디저트를 함께 맛보고 보성에서 준비한 공연과 이벤트를 대규모 인원이 함께하는 찻자리 이벤트로 꾸며질 예정이다.

△보성티마스터컵은 보성차(茶)를 기반으로 한 식음료의 비주얼, 맛과 향, 창의성, 시장성, 활용성 등을 평가하고 최고의 식음료를 선정하는 경연대회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보성애(愛) 물들다(茶)는 한국차문화공원 북측 차밭에서 지역민이 준비한 카페 음료, 소반 도시락, 생태 꾸러미(키트) 체험 등 감성 소풍 분위기를 한껏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찻잎 따기와 차 만들기는 보성군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실제 차밭에서 관광객들이 직접 차(茶)를 따고 만들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행사장에서 구입한 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다구를 빌려보성의 넓은 자연에서 차를 마음껏 마실 수 있고, 디자인 그늘막(아트쉐이드), 쿠션 소파(빈백) 등을 행사장에

보성다향대축제,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전국 단위 스포츠 행사(마라톤, 요트),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보성군민의 날, 어린이날 행사, 데일리콘서트-드론라이트쇼 등 다채로운 축제를 만나볼 수 있다.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보성군 문화예술회관과 판소리성지에서 명창추모제 및 추모 공연, 명인·명창 고수경연대회,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등으



설치해 이색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 반짝반짝, 들썩들썩 보성통합대축제

이번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는 9종의 보성 대표 축제가 총출동하는 통합대축제로 개최된다.

로 진행되며 참가 희망자는 4월 15일까지 보성녹차마라톤대회 누리집(boseong.run1080.co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4년 한국유티미스트 전국요트대회는 5월 4일부터 이틀간 보성울포솔밭해변에서 2개(유티미스트, 토파즈) 중풍 12개 부(초등·중등·일반)의 레이스 경기를 진행한다.

△제20회 일림산철쭉문화행사는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최대 철쭉 군락지인 웅치면 일림산에서 열린다. 철쭉 제례와 산림문화 행사, 숲속 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을 한창적인 풍광 속에서 즐길 수 있다.

△제47회 보성군민의 날은 5월 3일 보성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며, 보성군민의 상 수여, 청년 도약 보성 기념행사, 체육대회, 북면가왕(노래자랑) 등 군민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모두가 행복한 행사를 만들 예정이다.

△제102회 어린이날 행사는 오는 5월 5일 한국차문화공원 잔디광장에서 개최된다. 아동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사진 만들기, 풍선아트, 도전골든벨, 경품 추첨, 청소년 공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제2회 데일리콘서트는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보성역 일원에서 청년, 중장년, 실버세대까지 아우르는



콘서트다. 장르별 화려한 출연진과 무대로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들 계획이다.

△드론라이트쇼는 5월 4일 데일리콘서트 이후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으로 나아갈 기틀을 만든 보성군 열선루와 천년의 보성 차(茶)를 보여주는 빛의 향연을 펼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대한민국 녹차 수도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번 다향대축제를 통해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보성차(茶)의 멋과 맛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라며 "2024년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원영/기자



이천시-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 융합캠퍼스 업무협약 체결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맞춤형 반도체 실무인재 집중 육성, 현장 인력 확대 기대



이천시와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는 4일, 한국반도체융합캠퍼스 대학본부에서 이천반도체교육센터 유치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상호

육 공간 구축 및 기자재 확보, 기관 공유 시설물 공동 이용, 기업 맞춤형 취업 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등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협약에 따라, 이천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에 필요한 정보와 인프라를 공유하고, 각 기관이 가진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 직업교육기관으로써 산업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이천시는 이천반도체교육센터 유치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만성 결원과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여 현장 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에 인한 교육 인프라 한계를 보완하여 10대 핵심공약인 반도체 특성화 IT융합연합대학 유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천시의 인재양성 사업으로

수원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와 교류·협력 약속

이재준 수원시장, KSEA 오태환 차기회장 면담하고 협력 방안 논의

수원시와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가 바이오산업 관련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준 시장은 4일 시청 집무실에서 오태환(로체스터공과대학 컴퓨터·정보학부 교수) KSEA 차기회장을 면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수원시 바이오산업 진흥·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첨단과학 연구중심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수원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KSEA가 중장기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1월 8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KSEA SVC(KSEA 실리콘밸리지부)와 '한

미 과학기술 과학자 상호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광교 바이오이노베이션 밸리' 조성사업을 설명한 바 있다.

수원시와 KSEA SVC는 ▲수원 광교 바이오이노베이션 밸리 조성 등 첨단산업 기업·투자유치 활동 지원 ▲KSEA SVC 주관 콘퍼런스·세미나 등 협회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 ▲한국과 미국 과학기술(바이오, 반도체, AI 등) 교류 활성화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KSEA는 1971년 설립됐다. 92개 지부, 31개 과학기술 관련 전문단체로 구성됐고, 과학·의학·공학 등 분야의 재미 한인 연구자 7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여주시 미술관 '아트뮤지엄 러' - '2024년 상반기 기획전 구입 소장품展 2부' 개막식 성황리 개최

여주시 미술관 '아트뮤지엄 러'는 지난 4월 3일 2024년 상반기 기획전 구입 소장품展 2부 《픽셀(Pixel): 풍경의 재해석》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막행사에는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하여 여주시의회 의장, 한국예총 여주시지회장, 여주시 문화예술 관련 단체장, 참여 작가 및 여주지역 작가 등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전시의 개막을 축하했다.

특히 개막식 특별 공연으로 여주지역 및 전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아트 앤 컬처(대표 이세영)'에서 소프라노와 테너, 피아노 연주로 참여자와 공감할 수 있는 뜻 깊은 축하 공연을 진행했다. 이번 전시에 대해 여주시 시장(이충우)은 "여주시의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담은 작품들을 통해 여주시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전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예술 작품과 문화적 경험을 함께 나누며 발전하는 여주시 미술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4월 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4년여간 미술관이 수집한 소장품 중 '풍경'을 주제로 작품을 선별하고 연구한 결과물을 선보이는 전시로, 회화, 조각, 사진, 미디어 등 총 22점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여주시 미술관 '아트뮤지엄 러'에서는 2024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유아 대상 교육프로그램 '생각이 말랑말랑, 미술관 나들이' 진행을 4월 18일부터 진행한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미술관 관람 예절 및 미술관에 대해 알 수 있는 교육용 애니메이션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 속 작은 미술관'을 만나볼 수 있다.

김범상/기자



용인특례시, "성북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위한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 진행"

20년 넘게 방치된 공터, 문화예술여가공간으로 변신시키는 사업 착수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성북동 177번지 일원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타당성 조사가 이달 중 착수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일반주거지역인 약 1만 627㎡ 규모의 부지에 공연장과 전시장을 갖춘 4층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세우기 위한 행정적인 준비를 해왔다.

이에 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 2003년 도시계획시설 상 조 등 학교 부지로 결정된 이곳은 지난 2012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설립 계획을 취소한 뒤 오랜 기간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채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다. 성북동 주민들은 이 부지에 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오랜 기간 요청했고,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은 2년 전 선거 때 다수 주민의 뜻을 고려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공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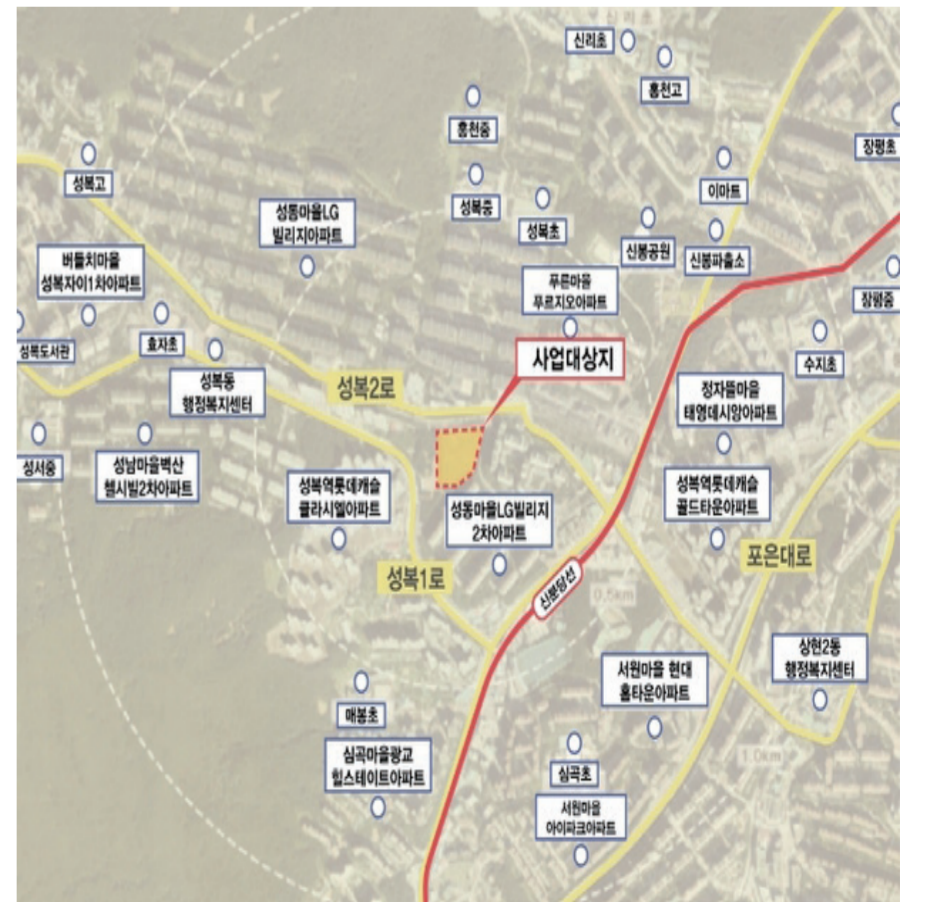
이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시장 선거 직후 당선인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복합문화센터 건립 방안을 검토했다. 같은 해 12월 시는 이 부지에 공공청사와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했다.

시는 2023년 9월 14일 '성북동 복합문화센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책정했으며, 시의회는 이를 2024년 시 예산에 반영했다.

시는 타당성조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에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같은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2026년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건축설계 공모와 설계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20년이 넘도록 성북동의 핵심지역에 공터로 남아있는 곳에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시의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광주시, 2024 제20회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D-100



(재)광주시문화재단은 '2024 제20회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광주' 행사 100일을 앞두고 메인공연 티켓판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 운영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는 메인공연과 강연, WYWO 프로그램, 프린지 공연, 전시 등 관악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들이 운영될 예정이며 그 중 메인공연은 WASBE 예술위원회 엄선한 미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호주, 대만, 싱가포르 등 8개국 13개 팀이 참여해 행사 기간인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남한산성아트홀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2024 세계 관악컨퍼런스는 전 세계 청년 음악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WASBE가 선정한 최고의 지휘자와 함께 연주를 진행하는 'WYWO(WASBE Youth Wind Orchestra)' 프로그램과 광주시 곳곳에서 연주 기회를 제공하는 프린지 공연 등 전 세계 연주자와 단체를 대

상으로 공모를 통해 신청분야 선정을 마쳤고 관람객과 방문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준비해 왔다.

강연을 포함한 컨퍼런스 참여 등록은 접수 중이며 공연 관람만 원하는 분들을 위한 공연 티켓은 '티켓링크'를 통해서 4월 8일부터 예매 가능하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세계관악컨퍼런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문화재단 WASBE 운영실 관계자는 "메인공연은 학술행사, 강연 등 관악컨퍼런스의 다른 행사들과 달리 예술가, 전문가뿐 아니라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찾아오는 국내외 일반관람객이 참여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라며 "2024 세계 관악컨퍼런스가 아니면 어디서든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감동을 관람객들에게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경증 치매 어르신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 '녹색충전의 숲' 운영

화성시가 화성시 치매안심센터 센터 경증 치매 어르신 16명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녹색충전의 숲'을 운영한다.

산림치유란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으로, 인지·균형·신체기능 능력의 향상과 우울증상 완화에 도움이 준다.

지난 4일을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매주 목요일 총 12회에 걸쳐 수원국유림 산림치유지도사가 ▲숲 산책 ▲마음명상(상임불) ▲자연 염색체험 ▲뇌체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숲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뇌 치매 어르신들에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스트레스 관리 및 인지능력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정식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산림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을 만끽하며 몸과 마음이 치유 받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치매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2024 경기도 체육대회는 파랑이와 함께 라라라

파주시, 체육대회 홍보 위한 2차 마스크트(파랑이) 게릴라 행사

파주시는 지난 4일, 파주에서 개최 예정인 2024 경기도체육대회에 앞서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대회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2차 게릴라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게릴라 행사는 지난달 17일 파주 놀이구름에서 진행된 1차 행사에 이어 2차로 진행된 행사로 운정건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회 마스크트 파랑이와 승부차기 대결이 진행됐다.

이날 백여 명의 방문객이 파랑이와 대결을 펼쳤으며, 골키퍼인 파랑이를 상대로 골을 넣으면 다양한 대회 홍보 기념품을 지급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운정건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4 경기도 체육대회 시민 응원 영상 촬영이 진행됐다. 파주시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광

역 단위 종합 체육대회인 만큼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향해 아낌없는 응원을 보였다.

마지막 게릴라 행사는 '파랑이를 남겨라!'로 4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제2회 공룡촌 톨립축제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장을 방문한 시민을 대상으로 대회 마스크트 파랑이와 함께 사진을 찍고 현장에서 바로 인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체육대회 개막에 앞서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게릴라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이번 대회가 파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광역 단위 종합체육대회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경기도 학생들의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 키우기 위한 조례안 발의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학교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4월 5일 경기도 학생들의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금융은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필수 요소가 됐고 최근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의 출현,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와 디지털 금융의 발전 등으로 금융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이 충분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따라가지 못한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안의원은 금융이 학생들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 역량이라고 보고,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의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을 키우는 한편 다양한 금융사기·전세사기 및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 경기도교육청의 금융교육 시책 수립·시행 △ 금융교육의 기본 원칙과 추진 목표 등이 포함된 금융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 금융교육 표준교안의 마련 △ 금융교육 전문성을 위한 학교 교원 대상 연수 △ 금융 또는 금융교육 전문기관에 대한 금융교육 위탁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금융교육 실태와 문제를 지적하고 생존교육, 융합교육, 생애교육의 관점에서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금융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안의원은 전세사기, 금융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도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의원은 "이 조례안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역량을 제공하고, 건전한 합리적인 금융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기도의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유일 특성화고 '한국외식과학고 오감만족 작품전' 격려

5일, 양주시 유일 특성화고, 한국외식과학고의 '오감만족 작품전' 열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5일,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양주시 남면 개나리 18길1) 3학년 학생들의 '오감만족 작품전'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오감만족 작품전'은 한국외식과학고 3학년 학생들이 정규 교과 수업과 방과후학교 수업, 동아리 활동 등에서 습득한 조리, 제과·제빵 등의 전문기술로 제작한 음식 작품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전시회이다.

작품전에 참석한 김민호 의원은 "AI가 발전한다고 해도 사람의 정성이 깃든 음식의 맛은 절대 흉내 낼 수 없을 것"이라며, "양주시 유일의 특성화고인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익힌 배움과 노력에 자부심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는 '협약형 특

성화고'에 선정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 기업체, 단체 등과 함께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에 포함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양주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인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협력형 특성화고 선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 김금숙 교육장과 한국외식과학고 석용범 교장, 교직원과 학부모님에게 감사드린다"며, 취업과 진학을 앞두고 3 학생들에게 "그간 지역에서 받은 관심과 지원을 기억하며, 지역사회 소외 계층을 돌아보고 함께 도울 수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축사를 마쳤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5일 성남시 가천대학교에서 열린 '제79회 경기도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 "기후위기

시대에 '경기도민 1인 1나무 심기'를 통해 탄소중립을 앞당기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최미리 가천대 수석부총장과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해 탄소중립을 통한 지구보호를 위해 나무심기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식목행사가 열린 곳은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복구지역으로, 참석자들은 1,500평에 산수유 등 7종 2,1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이번 식목행사를 성남으로 유치하는 데

앞장 선 최만식 의원은 "지구 온난화로 기후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대기환경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1인 1나무 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수종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경관수종에서 벗어나 밀원이나 풍부한 나무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만식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도의회 농정해양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1인 1나무 심기, 꿀벌을 위한 밀원수 확보 등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도의원, 탄소중립 실현위해 성남에서 열린 경기도 식목 행사 참석

5일 가천대 산사태 피해지에서 김동연 지사 등 참석해 2,100여 그루 식재

경기도의회 광미숙 의원, 고양시의 관내 도로망 재정비 제안 수용에 감사

경기도의회 광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4일 고양상담소에서 시의 관내 도로망 재정비 제안 수용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 의원은 지난 29일,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등 고양특례시가 관리하는 관내 도로망 재정비를 시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에 시는 광 의원의 당부에 화답하듯 오늘(4일) 자유로·제2자유로·중앙로·경의로 등을 포함한 총 15곳에 51.78억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요 도로 정비는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앞두고, 국내외 방문객들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진행한다"며 "이번 정비로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광미숙 의원은 "본 의원이 고양특례시에 당부했던 제안이 속히 수용되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우선 꽃박람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통행량이 많은

도로부터 파임·균열 등을 확인하고 정비하여 지역주민을 비롯한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우리 시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광 의원은 "관내 굽직한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꽃박람회가 시작되는 26일 개막 전까지 완료될 계획"이라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서도, 시의 요청이 있으면 재선 도의원으로 서 꾸준히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김범상/기자

경상북도의회
GYEONGSANGBUK-DO COUNCIL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도민이 행복한 희망 경북! 경상북도의회가 만들어 갑니다.

조례 제정
도민의 삶을 향상시킬 규범을 만듭니다.

정책대안 제시
대안을 제시하여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듭니다.

도민 행복

예산안 심의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살핍니다.

집행부 견제·감시
합리적으로 집행하는지 정책을 체크합니다.

경북도,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기찾아!!

제1회 지역상권위원회 개최,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김천시 용두동 일원)

전국 두번째 지정으로 국비 확보 교두보 마련

쇼핑·커뮤니티·힐링 등 특화상권 조성으로 쇠퇴상권 자생 선도모델 구축

경상북도 지역상권위원회(위원장 최영숙 경제산업국장)는 2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 지역상권위원회 위촉과 함께 '제1회 지역상권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올 2월 19일 상권 이해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상권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권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했다.

자율상권구역은 최근 생산인구 감소, 인구 수도권 유출 등 지역소멸 위기가 증대됨에 따라 기존 구도심 상권 쇠퇴 및 지역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민간주도의 상권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지역상권범'상 지정하는 특별구역이다.

경남 함양(지리산 함양시장) 자율상권구역 지정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김천시가 용두동 일원(구역명, 삼색이수상권, 64,112㎡)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 신청했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대규모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상권활성화 사업은 기존 전통시장법에 근거한 전통시장, 삼정가 등 개별지원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나의 '상권단위'로 묶는 기반 구축 사업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 지원하는 상권 정책으로 5년간 최대 1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상권 활력 프로젝트다.

김천시 자율상권구역(구역명:삼색이수상권)이 지정되면 5년간 최대 45억원의 사업비로 쇼핑·커뮤니티·힐링 등 특화상권 조성을 통해 쇠퇴상권 자생 선도 모델을 구축한다.

김천시가 제출한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경북도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김천시에서 구역 공고·고시 절차를 통해 지정된다.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김천시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경북 1호 자율상권구역 지정이다"

면서, "이는, 국비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본 사업을 통해 쇠퇴한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 선도모델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미래사회를 위한 저출생 극복에 나선다!

“저출생과의 전쟁 과제별 실행계획 수립 보고회” 개최

윤경희 청송군수, “지방정부 저출생 성공모델에 선봉에 서겠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프라 확장과 정책 개발을 을 핵심과제로 전 행정력 집중하겠다.”고 밝히

청송군은 최근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저출생과 전쟁'에 발맞추어, 저출생을 극복하고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노력을 펼치고 있다.

군은 지난 3일(수) 군청 제1회의실에서 부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과 전쟁 과제별 실행계획 수립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일·가정이 양립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한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청송군 저출생 극복 성공모금 캠페인 추진'을 통한 저출생 극복 인식과 마음 확산, '청송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사업'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등 부서별로 실행계획을 적극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부군수를 단장으로 ▲저출생 지원 ▲정주여건 ▲출산·보육 등 분야별 저출생 대응 TF팀 수립을 확정하고, 저출생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생을 극복하는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도의 저출생 대책에 발맞춰 지방정부의 저출생 성공모델을 만드는 데 선봉에 서겠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프라 확장과 정책 개발을 올해 핵심과제로 삼아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부산에 과학이 산다! 「제23회 부산과학축전」 개최

부산의 인물·산업·문화 속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과학적 소재를 알아보고 최신 과학기술 성과를 즐길 수 있는 부산 최대 과학축제의 장으로 마련



부산시는 오는 13일과 14일 양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제23회 부산과학축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와 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부산과학기술협의회와 부산시교육청장의 융합교육원이 공동주관하는 과학축전은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다.

이번 과학축전은 '부산에 과학이 산다'를 주제로 부산의 인물·산업·문화

속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과학적 소재를 알아보고 최신 과학기술 성과를 즐기는 부산 최대 과학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지역 과학관과 학교 과학동아리 등 70여 개 기관이 참가하며, 총 100여 개의 다채로운 과학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프로그램 주제별로 ▲지역 과학이바구 ▲산업 과학이바구 ▲학교 과학이바구 ▲특수 과학이바구 등 4개의 과학체험관을 운영한다.

'지역 과학이바구'에서는 부산의 명물, 인물, 상징물 등의 과학원리를 알아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 과학이바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이동 수단(모빌리티)에 적용된 과학기술을 알아보고, 지역의 과학관·연구소·기업·민간단체

등과 함께 부산의 과학 산업과 미래 기술을 공유한다.

'학교 과학이바구'에서는 부산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과 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과학 창작물을 제작하고 소개하는 과학교육 체험장으로 꾸미 예정이며, '특수 과학이바구'에서는 과학 유튜브 엑스, 이정도 전(前) 국립과천과학관장, 문경수 과학탐험가, 과학커뮤니케이터 미나니 등의 과학강연과 코믹 사이언스쇼, 버블 판타지, 드로잉 서커스 등의 과학융합공연이 펼쳐진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과 일부 현장 선착순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해커 미니대회와 과학 보물찾기 미션투어, 캐릭터 만들기, 스포츠 스타킹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한편,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13일 오전 10시 내빈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벡스코 제1전시장 내 '특목 과학이바구(강연장)'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은 뛰어난 연구개발 업적을 거둔 과학기술인을 격려하는 '제23회 부산 과학기술상' 시상식 등의 다양한 행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올해 과학축전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과학축전 누리집(www.busans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광희 시 경제부시장은 “일상에서 과학적 소재를 체험하고 미래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이번 과학축전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구성했다”라며,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학생들뿐 아니라 시민 여러분께도 색다른 체험의 장이 될 이번 과학축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더욱 즐겁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사)대한노인회 영양군지회 부설 제39기 노인대학 입학식

오도창 군수, “항상 배우시려는 열정에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히

(사)대한노인회 영양군지회는 지난 5일, 영양군종합복지회관 강당에서 제39기 노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54명의 노인대학 입학생 어르신들과 내·외빈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가졌으며, 영양신바람소리 동호회의 색소폰 연주와 경로당 행복선생님 활동에 관한 영상으로 행사를 시작했다.

제39기 노인대학은 오늘 입학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총 24회에 걸쳐 진행되며 명사 초청 특강, 인문학 강좌, 요가·노래교실,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노인회 영양군지회 안재범 지회장은 “올 한해 노인대학에서 많은 것

을 경험하고 즐기면서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하시길 바란다.” 라고 인사했다.

이날 축사에서 영양군의회 김석현 의장은 “평생 배우고 공부하려는 자세에 존경을 보낸다. 노인대학에서 배우실 지식과 경험은 앞으로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노인대학 입학을 축하드리며, 배움에 늦은 때란 없다. 항상 배우시려는 열정에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역시, 대구·경북 청년 대상 여행작가 양성

올해 4회째 여행작가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3. 30.~4. 12. 온라인 모집(15명) / 4. 20.~6. 15.(12주) 매주 토요일 교육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관광협회, 한국문화예술관광진흥원, 시민보호구역과 함께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관광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2024 제4기 대구·경북 청년 여행작가캠퍼스, 여행스케치 청년(2024년 대구·경북 청년여행작가캠퍼스 교육 콘셉트로 '청년'은 '맑고 깨끗한 인연'의 의미며, 청년이란 단어를 읽을 때의 또 다른 발음을 지칭함)'교육을 실시한다.

청년 여행작가 교육은 대구·경북 거주 및 주소지를 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 3월 30일(토)부터 4월 12일(금) 오후 5시까지 온라인(https://linktr.ee/sibozone2012)으로 접수하고 있다. 지역 청년 15명을 모집 중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교육과정은 오는 20일(토)부터 6월 15일(토)까지 총 12주간 문화예술관광 전문가와 함께 진행되며, 문화예술 및 관광의 이해, 사진영상의 이해, 여행 글쓰기 특강, 여행책 출간 노하우, 음식 에세이, 출판원고 첨삭지도, 현장 탐방 및 낭독 북 콘서트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에는 EBS 세계테마기행 진행자로 유명한 여행작가 변종모('나는 걸었고 세상은 말했다')외와 1세대 여행 크리에이터이자 여행작가인 안시내('악당은 아니지만 지구정복') 등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또한 제4기 글쓰기 전담강사로 대구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이자, 북성로 수제화 골목에서 '북성로대학' 인문학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양진오 교수('당대의 한국문학, 한국문학의 당대')외가 참여한다.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청년에게는 졸업장 수여, 여행 도서집 공동발간 등의 기회가 주어지며, 교육생들이 직접 준비하는 여행 도서 전시회 및 낭독 북 콘서트로 이번 교육은 마무리된다.

배정식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지역 청년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기록한 여행이야기를 지역 관광 콘텐츠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크다”며,“제4기 대구·경북 청년여행작가 캠퍼스 운영을 통해 우수한 여행작가를 배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국내 최초!! 인문학여행작가양성학교

2024 대구경북청년여행작가캠퍼스 여행스케치 청년 모집

여행스케치 청년 전액무료

모집기간: 3월 30일(토) 09:00 ~ 4월 12일(금) 17:00까지 (신청서 및 OT 4/16(토) 19:00 소싱캠퍼스(온대구 105) (교육비 전액무료)

신청방법: https://linktr.ee/sibozone2012 또는 QR코드 (교육비 전액무료)

신청대상: 대구경북 거주 및 주소지를 둔 청년 (만 19세~39세)

선정인원: 2030 대구경북 청년 15명 (선정 발표 4월13일 19:00 예정)

문의전화: 1899-7083, 070-8862-4530 (청년여행작가캠퍼스 사무국)

교육장소: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대구시청내부 105, 소싱캠퍼스) 105

교육일정: 매주 토요일 10:00~13:00 (교육비 전액 무료, 교육 12주) (휴일일: 이혼교육, 휴일일: 현장탐방)

강차	교육내용	강사
1강 (4/20)	글쓰기 교육 / 관광의 이해	왕진오 (청년 글쓰기강연가)
2강 (4/27)	문화예술의 이해 / 글쓰기 교육	왕진오 (교수, 원 한국관광산업학회 회장), 오동욱 (대구광역시청관광정책팀장), 왕진오 (청년 글쓰기강연가)
3강 (4/30)	현장탐방 (현장인, 문화인, 낭독문화제까지)	정원준 (청년여행작가캠퍼스 교육장)
4강 (5/04)	여행작가와 글쓰기 / 글쓰기 교육	안시내 (여행작가), 왕진오 (청년 글쓰기강연가)
5강 (5/11)	집중 글쓰기 (행사지도 및 창작의 실제)	왕진오 (청년 글쓰기강연가), 정원준 (청년여행작가캠퍼스 교육장)
6강 (5/14)	현장탐방 (현장인, 구암서원, 대구국제박물관)	정원준 (청년여행작가캠퍼스 교육장)
7강 (5/18)	사진영상의 이해 / 글쓰기 교육	왕진오 (다매체작가의 사진작가), 왕진오 (청년 글쓰기강연가)
8강 (5/21)	현장탐방 (선유도·항유정지, 단산지, 불로동 고분군)	정원준 (청년여행작가캠퍼스 교육장)
9강 (5/25)	음식문화에세이 / 글쓰기 교육	이혼오 (여행/시각), 왕진오 (청년 글쓰기강연가)
10강 (6/01)	여행작가와 글쓰기 / 글쓰기 교육	왕진오 (청년 글쓰기강연가), 변종모 (여행작가)
11강 (6/08)	집중 글쓰기 (행사지도 및 창작의 실제)	왕진오 (청년 글쓰기강연가), 정원준 (청년여행작가캠퍼스 교육장)
12강 (6/15)	집중 글쓰기 (행사지도 및 창작의 실제)	왕진오 (청년 글쓰기강연가), 정원준 (청년여행작가캠퍼스 교육장)
졸업서 (7/23)	낭독북콘서트 및 전시회	교육생 전원 및 내외빈

모집기간: 3/30~4/12 (총 12강, 15명)

나도 청년여행작가? 지역의 문화관광을 함께 배우는, 여행스케치 청년

한국문화예술관광진흥원 시민보호구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관광협회

안동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홍보책자 제작·배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한눈에 확인하세요

안동시는 시민들의 주거정책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살펴보기」 홍보책자를 제작·배포한다.

홍보책자에는 ▲주거급여지원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비주택 주거상향 지원사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시는 홍보책자를 시민이 자주 찾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 배부해 필요한 시민이 손쉽게 주거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



해 주거취약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경북소방본부, 제13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대학·일반부 12개팀, 학생·청소년부 9팀 총 21개팀 183명 참여
청도 CPR 세속오계·경주 기적의 황산별! 팀 대상 수상, 5월 전국대회 경북대표 참가
박근오 소방본부장, “앞으로도 도 소방본부는 다양한 홍보와 오늘 같은 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21개팀 183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3회 경상북도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대회는 1일 차 대학생·일반부, 2일 차 학생·청소년부로 나누어서 진행하였으며 팀별로 준비한 심정지 상황에 대한 짧은 연극과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무대 표현의 완성도와 독창성, 심폐소생술의 정확성 등을 평가하여 수상팀을 결정하였다.

대회 진행 결과 대학생·일반부에서는 ‘운문사로 출가한 딸 때문에 충격을 받고 쓰러진 아버지를 심폐소생술로 소생



시킨다’는 주제로 경연을 펼친 청도군 운문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로 구성된

‘CPR 세속오계’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또한, 학생·청소년부 대회에서는 ‘신

라군과 백제군의 전투 상황 보고를 받고 쓰러진 선덕여왕을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킨다’는 주제로 경연을 펼친 경주시 효창보건고등학교 ‘기적의 황산별!’팀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에 수상한 ‘CPR 세속오계’팀과 ‘기적의 황산별!’팀은 오는 5월 29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제13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경북 대표로 참가한다.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먼저 이번 대회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도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다양한 홍보와 오늘과 같은 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협조와 협력으로 산불예방!’ 울진군 봄철 대형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산불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5일 울진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봄철 대형산불 대비를 위해 지역 관계기관과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울진소방서, 울진경찰서, 대구지방기상청, 육군5312부대, 한국전력공사 울진지사, 울진군산림조합 등 8개 기관이 참석했으며, 산불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봄철 산불예방 대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군은 회의를 통해 봄철 ‘산불 특별대

책기간’ 및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반 및 대응반을 구성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동해안 지역은 봄철 건조하고 강풍이 자주 불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라고 하면서 “산불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산불예방활동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경주시,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본격 운영

제5기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원 선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위한 특강도 가져
주낙영 경주시장,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인 만큼,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발굴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해

경주시가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제1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임원진 선출과 주민참여예산 운영방향 모색을 위한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전반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제안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5기 위원회는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총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위원들 간 호선을 통해

위원회를 이끌 권영부 위원장과 전성환 부위원장 및 각 분과별 위원장 3명이 선출됐다.

권영부 위원장은 “이번에 구성된 제5기 주민참여위원들과 힘을 모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특강은 2024년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향 설명과 위원회의 역할 등 위원들의 역량 배양을 위한 시간도 가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인 만큼,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발굴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윤태용/기자



영덕군,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 표창 영예

사회적 약자 배려한 ‘열린 민원실’ 높은 평가 받아

김광열 영덕군수,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혀

영덕군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안부가 전국 245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국제청 등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환경, 서비스, 현지 체험, 만족도 조사 등 4개 분야 24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기관 선정할 후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영덕군은 작년 5월 종합민원처리과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민원실 공간을

확장하고 민원 환경을 개선하는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민원실 공간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장애인이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을 통하는 모든 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고 서류 작성대 시설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과 임산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상 깊었다.

이 밖에도 영유아를 동반한 민원인이 쾌적한 공간에서 기저귀를 바꿔주거나 수유할 수 있는 수유실과 담당 공무원

과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민원상담실 설치,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어디서나 잘 보이는 3면 안내판 제작,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위한 강화유리 설치 등 민원 행정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 향상에 힘쓴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김광열 영덕군수는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문화/기자



의성금봉자연휴양림, 2024 상반기 숲길체험프로그램 실시

김주수 의성군수, “금봉산 자락의 때 묻지 않은 신비한 자연경관과 숲속 체험 시설을 갖춘 천혜의 휴식 공간을 지역민과 방문객에게 특색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혀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에서는 오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숲길등산지도사와 함께하는 2024년 상반기 숲길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시작한다.

이번 숲길체험프로그램은 휴양림 숙박객 및 관람객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일반프로그램인 치유의 숲길 ‘쉬명휴명’과 상시프로그램인 숲 빙고놀이와 숲길시화QR 퀴즈가 있으며, 일반프로그램은 매주 화·수·목 오전 09시 30분부터 11시 30분/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운영한다. 체험비용은 무료이며, 사전예약제로 전화 접수로 운영한다.

그리고 상시프로그램은 요일 및 시간 제한 없이 연중 실시하며, 사전예약 접수 없이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체험비용은 일반프로그램과 동일하게 무료이다.

일반프로그램인 치유의 숲길 ‘쉬명휴명’은 숲길등산지도사 인솔하에 휴양림 내 산책로 중 하나인 치유의 숲길과 유리온실을 돌아보며, 휴양림 내 분포되어 있는 동식물 소개 및 휴양림의 지형 특성 소개, 솔밭을 컬링체험으로 구성 되어 있다.

특히 이번 숲길체험프로그램은 의성군보건소가 주관하는 치매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솔밭을 컬링 체험, 맨발걷기, 노르딕 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노령층의 치매 등 질병 예방에

앞장선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금봉자연휴양림은 금봉산 자락의 때 묻지 않은 신비한 자연경관과 숲속 체험시설을 갖춘 천혜의 휴식 공간으로,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특색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영천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 대상자 모집

영천시가 우수외국인인재 및 외국국적동포 유치를 위해 오는 9월 20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내 거주·취업을 조건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외국인인재 및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 장기체류에 적합한 거주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영천시는 작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1월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우수외국인인재 63명을 배정받았다.

우수외국인인재 유형은 국내 전문대학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또는 전년도 1인당 GNI 70%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또는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인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국적동포 유형은 사업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 또는 비인구감소지역이나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가족과 동반해 사업지역으로 이주하는 동포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를 희망하는 외국인인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접수 시작 및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접수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영천시배정 인원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영천시청 인구교육과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절차, 구비서류 등 세부내용은 영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천시는 영천시가족센터를 통해 한국어교육, 각종 한국문화 체험프

로그램, 통번역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해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인과 동반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지방세 체납 특단 대책 시행 첫 번째로 가상화폐 추적

올해 체납세 1,847억원 중 739억원 징수하기로

경상북도는 올해 체납세 1,847억원 중 739억원(40%)을 징수한다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계획을 세우고, 그 첫 막을 '가상화폐 일제 조사'로 열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상회하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체납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판단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지금까지 체납자에 대한 각종 투자자산을 여러모로 조사해 금융기관을 통해 추심해 왔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화폐 거래는 다른 투자자산과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의 협조 없이 추적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체납자들이



세금 납부는 회피하면서 가상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가상화폐 일제 조사는 도내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약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벌이고, 국내 4개 가상화폐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추적한다.

체납자가 가상화폐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매각, 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를 중단시키고, 압류 후에도 체납세를 끝까지 내지 않을 경우 가상화폐를 거래 시장에서 매각한다.

박시홍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도 사회·경제적 트렌드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며, 가상화폐 조사를 첫 시작으로 다양한 징수 방법을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이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2024년 저수령 그란폰도 행사장 안전점검

안전이 우선! 유관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으로 꼼꼼하게 점검



예천군은 지난 5일, 2024년 저수령 그란폰도 행사장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해 행사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합동 점검반은 개최장소인 예천을 예천스타디움과 출발지인 예천교 일원에서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천 경찰서, 예천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해, 인원 밀집 시 통제대책, 화재 방지대책, 행사장과 주변 통행로 시설 운영기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기·소방설비 시설 관리 실태, 교통관리 사항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어 예천-문경-단양 일원 라이딩 코스의 위험구간 사전파악, 도로 노면상태 확인 등을 일제 점검하여 행사 전 안전점검 추진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안전대전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안전 한 바퀴!'라는 슬로건으로 생활 주변을 점검하며 안전 위험요소를 발굴하는 주민 참여형 안전 문화 캠페인도 진행했다.

황재국 안전재난과장은 "저수령 그란폰도는 참가인원이 많고, 사고 위험성이 큰 대회인 만큼 참가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선일/기자

스리랑카 국회의원 일행 새마을운동 배우러 경상북도로!

경북·스리랑카 10년, 스리랑카 주요 인사 연이어 경상북도 방문 마힌다 야파 와베와르다나 스리랑카 국회의장, 이철우 도지사 면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일 도청 접견실에서 마힌다 야파 와베와르다나 스리랑카 국회의장과 양국 간 새마을운동 등 다양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스리랑카 국회가 새마을운동을 스리랑카 사회와 경제 발전 모델로 삼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마힌다 야파 와베와르다나 스리랑카 국회의장은 새마을운동이 지역 주민과

함께 주민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리랑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스리랑카 정부 차원에서 시작하는 'New Village, New Country' 국가변혁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마을 전담부서와 협력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할 것임을 피력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은 마

을 주민 스스로 잘 살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며, 주민들이 '우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새마을운동이 스리랑카 현장에서 인제 양성하고 농업혁신으로 이어져 지역사회부터 시작해 나가 스리랑카의 번영과 풍요로운 미래를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힌다 야파 와베와르다나 스리랑카 국회의장에게 "스리랑카의 성공

을 위해 경상북도에 적극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스리랑카에서 2014년부터 마을 단위 새마을시범마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0년인 올해를 새마을 대전환 원년으로 선포했고, 이에 스리랑카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을 위해 행정부, 입법부 수뇌부들이 연이어 경상북도를 방문했다.

윤근수/기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힐링 역사 문화 탐방

남북한 문화적 차이 해소,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계기 마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주시험의회는 지난 4일(목), 상주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자문위원 30여명과 함께 힐링 역사문화탐방을 개최했다.

이번 북한이탈주민 힐링 역사문화탐방은 자문위원과 함께 지역명소를 걸으며 남한에서의 생활·문화 방식 등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남북한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문화탐방에 함께한 북한이탈주민은 파독전시관에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독일광부와 간호사의 삶을 견학하고, 원호대사가 창건한 남해보리암 일원을 함께 걸으면서 가족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윤경한 협의회장은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운 마음, 고

향을 갈 수 없는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야겠지만 언젠가 통일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는 희망을 안고 사시길 바란다"며, "이번 여행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휴식처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견학에 참가한 북한이탈주민 김모씨는 "평소 생업에 바빠 여행할 기회가 적었는데 가족 지인과 함께 소소한 이야

기를 나누면서 좋은 추억을 만드니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진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민주평통 상주시험의회는 매년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 및 간담회, 명절과 연말 정 나누기 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류·소통하고 있다.

김동현/기자



영천시, 통합신공항 대응 연계분석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영천시는 지난 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영천시 통합신공항 대응 연계분석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진현 부시장을 비롯해 6개 관련 부서와 (주)이비체 추성태 대표, 금호농협 이상호 팀장 등 수출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영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자동차

차부품 산업 물류센터 ▲농식품 콜드체인 거점센터를 통한 신공항과 연계한 중점 과제로 선정했으며, 과제별 입지 분석, 추진방향, 실행방안 등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신공항에 대한 영천시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김진현 영천시 부시장은 "2030년 통합 신공항 개항에 대비해 현재가 아닌 미래의 영천시를 고민하는 시간이었

고, 도출된 용역 결과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는 추가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영천시는 용역 결과를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경상북도 항공물류산업 육성전략 실행계획 용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김주수 의성군수,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적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 선발·포상해,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혀

의성군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시상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최우수, 우수 등급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명을 선발하였으며, 최우수에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실적관리 데이터를 구현하여 행

정 업무 효율을 증진시킨 복지과 홍민표 주무관, 우수에는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규제개혁으로 인력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미래산업과 박규택 주무관이 선발되었다.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선발등급에 따라 군수 표창 수여 및 시상금을 지급하고,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에게 체감되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을 선발하고 포상하여,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경북도가 대한민국 사과산업 틀을 바꾼다!

전국 최초 미래형 사과원(다축형) 조성, 사과생산 구조 대변신 해결사로 등장 다축형 재배 기술 사전 농가 교육, 선제적 대응

경북도가 야심 차게 시범 도입한 '경북 미래형사과원(다축형)'이 대한민국 사과 산업의 틀을 바꾼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중 하나인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은 우리도가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경북 사과 산업 생산구조 대전환의 핵심 사업인 다축형 사과원 조성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은 20ha 내외 규모로 스마트 과수원을 도입한 특화단지 조성, 재해 예방시설, 공동농기계를 필수 시설로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정부는 다축형 사과원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1,200ha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해 2월에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경북 미래형 사

과원 조성계획 수립과 올해까지 사업비 73억원을 투입해 60ha를 조성하는 등 2026년까지 300ha의 재배면적을 목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로 경북도 핵심 사업이 국비 핵심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도내 다축형 사과원 조성 확대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북도는 미래형 사과원(다축형) 조성을 확대하기 위해선 재배 기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2022년부터 경북농민사관학교에서 '다축형 재배 기술 과정'을 운영해 최신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다축형 재배 기술 과정은 전문 교육기관, 대학교, 선도 농가의 이론과 현장 교육 등 짜임새 있게 구성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초청 반부패·청렴특강 연다!

4.5. 10:00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강 개최... 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및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 참석해

부산지(시장 박형준)는 오늘(5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초청 반부패·청렴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모든 공직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회·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참석 대상은 부산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및 구·군,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참석 희망자) 등이다.

○ 이번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 주요 내용에 대해 강의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를 포함 총 600여 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 한편,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청렴도 2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 이상을 받았다. 이는 광역시도 중에서 부산시가 유일하다.

○ 시는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시뿐만 아니라 구·군, 산하 공사·공단 등 부산 지역의 청렴 역량이 다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청렴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난 2, 3월 구·군 청렴 담당 팀장 및 부서장 대상 청렴 회의를 통해 시·구·군 간 청렴 정책 협력 및 공동 추



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4월부터 청렴 교육 이수를 제고를 위해 시와 구·군의 교육 일정을 매월 공유해 대면 교육 의무자가 교육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최근 9기 모집을 완료하고 출범식을 마친 시 청렴동아리 '청렴갈매기*'와 구·군 자율청렴 동아리가 함께 캠페인 등 연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청렴갈매기 : 부산시 MZ 직원들로 구성된 청렴동아리로서, 청렴 연극, 청렴송 제작, 청렴 캠페인 등 다양한 청렴 홍보 활동을 통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음

○ 박형준 시장은 "올해는 청렴도 최상위권 달성을 목표로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청렴 의지를 다지고, 청렴 가치를 소중히 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구현'을 청렴으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대구광역시, '2024 대구 올해의 책' 선정 및 선포식 개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분야 총 10권 선정 올해의 책 구매 시 10% 현장할인 혜택 제공(교보문고, 영풍문고) 이와 연계한 독서 릴레이, 독서 캠핑도 추후 개최 예정



대구광역시는 지난 5일(금), 국제보상운동기념도서관에서 '2024 대구 올해의 책 선포식'을 개최했다. 시는 책이 하나 되는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올해의 책을 선정해 왔다. 올해의 책은 관내 도서관의 도서 추천을 시작으로, 대표 사서로 구성

된 도서추천단 심의를 거쳐 온라인 시민투표 후, 도서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번 절차를 거쳐 선정한 올해의 책은 ▲어린이 분야 '네 기분은 어떤 색깔이니(최숙희)', '동백나무가 웃다(권영세)', '약밤나무의 백 년 이야기(김

상삼)' 3권이며, ▲청소년 분야 '고요한 우연(김수빈)', '비스킷(김선미)', '읽고 쓰고 내가 됩니다(지혜)' 3권, ▲성인 분야 '가녀장의 시대(이슬아)', '거인의 노트(김익한)', '오늘 보는 그제 뉴스(박창원)', '축복을 비는 마음(김혜진)' 4권으로 총 10권이다.

올해의 책 선포식은 지난 5일(금) 오후 2시, 국제보상운동기념도서관 가온(B1)에서 개최 됐으며, 1, 2부로 나눠 각 분야별 선정도서 소개와 북 콘서트로 진행됐다. 1부 선정도서 소개에는 어린이 도서에 어린이 기자단 금재민 어린이, 청소년 도서에 전년도 청소년 대상 창의인재 부문 수상자인 배소울 학생, 성인 도서 소개는 '오늘 보는 그제 뉴스'의 저자 박창원 작가가 참여했다.

2부 북 콘서트에서는 '오늘 보는 그제 뉴스'의 박창원 작가를 초청해 1945년~1950년 매체가 단조로웠던 때 시

문기사를 통해 그 당시 대구의 이슈와 주민들의 일상을 소개했다.

아울러, 2024 대구 올해의 책은 관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시내 대형서점 등에서 만날 수 있으며, 교보문고(대구점, 칠곡센터), 영풍문고(롯데백화점 대구점)에서는 10% 현장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에는 올해의 책으로 구·군 작은도서관과 초·중·고 독서동아리 독서 릴레이를 진행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 캠핑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김중찬 대구광역시 대학정책국장은 "대구시가 시민들이 독서를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일상을 만들어 가는 데 힘이 되어드리겠다"며, "많은 분들이 대구 올해의 책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느껴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자원봉사센터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 실시

국제조리고 학생들과 '참된 봉사' 의미 나누

5인 이상단체 및 신규 자원봉사자 3인 이상 교육 신청 가능

영주시자원봉사센터는 5일 영주국제조리고 강당에서 국제조리고 학생 25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제조리고등학교의 자원봉사 교육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이날 강의는 영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경북전문대학교 경북지역 경제교육센터 센터장인 김철진 교수가 맡았다.

교육은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자원봉사의 개념 ▲봉사자의 자세 및 자원봉사활동 시 유의점 ▲자원봉사 인정 기준 ▲자원봉사 에티켓 ▲1365 자원봉사포털 시스템 활용 방법 및 봉사의 종류 등으로 진행됐다.

영주시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은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본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자원봉사 교육은 5인 이상의 단체 및 신규 자원봉사자 3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다.

김철진 영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자원봉사는 선행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어나가는 과정이다"며, 자원봉사 실천을 위한 기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함원화 영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학창 시절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높을수록 사회에 나가서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된다"며 "많은 학교와 기관의 자원봉사자 교육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주시자원봉사센터는 전문봉사자 양성 교육,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 가족 단위 봉사프로그램인 가족봉사단, 취약계층 영양개선 지원사업, 매달 지정 환경의 날에 진행되는 Day by day 환경캠페인 등 시민들의 자원봉사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제1차 청렴추진협의회 회의 개최

저조한 청렴도에 대해 책임 통감하며 실질적인 부패방지 대안 마련에 총력 박현국 봉화군수, "신뢰받을 수 있는 봉화를 위해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패 근절과 청렴실천 굳건 의지 밝히.

봉화군은 지난 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들과 한자리에 모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청렴시책 추진과 제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기 위해 사내 익명게시판에 게시된 건의 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청렴실천 캠페인도 진행해 간부 공무원 스스로가 청렴퍼포먼스를 통해 '청렴실천'과 '갑질근절'을 위한 청렴의

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은 것은 여전히 우리 군의 청렴 수준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신뢰받을 수 있는 봉화를 위해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부패 근절과 청렴실천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밝혔다.

김선일/기자

이후 청렴실천 캠페인도 진행해 간부 공무원 스스로가 청렴퍼포먼스를 통해 '청렴실천'과 '갑질근절'을 위한 청렴의



한울본부, '문화가 있는 날' 어린이 공연 '일루전 버블쇼' 개최

온 가족이 크고 작은 다양한 비눗방울과 함께하는 체험형 버블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오는 24일, 한울에너지팜 대강당에서 한울본부 '문화가 있는 날' 어린이 공연 '일루전 버블쇼'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울진군 관내 영·유아 및 초등생에게 즐거운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손버블부터 사다리줄버블까지 다양한 마술과 결합한 비눗방울을 관객이 보고, 만지고, 만들 수 있는 버블쇼다.

오전 10시 30분, 오후 5시 총 2회 공연으로 진행되며, 공연 시간은 각각

1시간이다. 오전 공연은 관내 어린이집 초청 단체 관람, 오후 공연은 일반 관람이다. 일반 관람은 사전 예약을 통해 100석, 선착순 현장 대기 200석까지 입장 가능하며 사전 예약 관련 안내는 15일 한울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과 한울본부 인스타그램(@hi_hanu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공연 내용 및 관람 방법은 한울본부 홍보부(054-785-2941)로 문의하면 된다.

한울본부는 올해도 지역주민과 함께

윤근수/기자

하는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토크콘서트, 가을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

경북산림환경연구원, 도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20개 시군 특별관리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재선충병 발생지역 중심 반경 2km 이내 행정동·리 기준, 반출 금지지역을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는 지름 2cm 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참나무)는 이동이 금지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도내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 재선충병 예방조치를 한 후 재배나 생산된 소나무류 조경수나 본재를 이동하려면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예외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산(임야)에서 자연적으로 나고 자란 소나무류는 이동이 금지된다.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조사 및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검사한 후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민원 신청 : 산림청 발급 서비스(<http://minwon.forest.go.kr>), 정부 24(<http://www.gov.kr>) 또는 산림환경연구원 팩스(054-741-5532))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경우,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전영수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의 법정 발급 기간은 15일이지만 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빈틈없는 업무처리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불법 이동을 차단해 도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한 표 '사전투표' 완료

이 시장, "유권자의 의무이자 권리인 투표에 많은 시민 참여해달라"

이강덕 포항시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포항시의회에 마련된 대이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최혜련 여사와 함께 투표를 완료했다.

투표를 마친 이 시장은 새벽부터 현장에 나와 근무하고 있는 투표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이 투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선거관리 업무를 공정하고 빈틈없이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강덕 시장은 "투표 참여는 유권자

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포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에 시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에 꼭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일과 6일 양일 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포항시는 이 기간 동안 남구와 북구 각 15개소씩 모두 30개소의 사전투표소를 설치 운영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은

오는 10일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에 가정으로 배송된 안내문에 고지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포항시는 본 투표일인 10일에는 남구 81개소, 북구 83개소 등 총 164개의 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포항 지역 내 남성 최고령자인 김상우(101, 장기면) 씨는 장기면 사전투표소인 다목적복지회관에 딸과 함께 동행해 투표를 마쳤다.

윤태용/기자



대구광역시, '2024 대구 올해의 책' 선정 및 선포식 개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분야 총 10권 선정 올해의 책 구매 시 10% 현장할인 혜택 제공(교보문고, 영풍문고) 이와 연계한 독서 릴레이, 독서 캠페인도 추후 개최 예정

대구광역시는 지난 5일(금), 국제보상운동기념도서관에서 '2024 대구 올해의 책 선포식'을 개최했다. 시는 책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올해의 책을 선정해 왔다. 올해의 책은 관내 도서관의 도서 추천을 시작으로, 대표 사서로 구성된 도서추천단 심의를 거쳐 온라인 시민투표 후, 도서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선정된 올해의 책은 ▲어린이 분야 '네 기분은 어떤 색깔이니(최숙희)', '동백나무가 웃다(권영세)', '악발나무의 백 년 이야기(김상삼)' 3권이며, ▲청소년 분야 '고요한 우연(김수빈)', '비스킷(김선미)', '읽고 쓰고 내가 됩니다(지혜)' 3권, ▲성인 분야 '가녀장의 시대(이슬아)', 거인의 노트(김익한)', '오늘 보는 그제 뉴-쓰(박창원)', '축복을 비는 마음(김혜진)' 4권으로 총 10권이다.

올해의 책 선포식은 지난 5일(금) 오후 2시, 국제보상운동기념도서관 가온(B1)에서 개최 됐으며, 1, 2부로 나눠 각 분야별 선정도서 소개와 북콘서트로 진행됐다. 1부 선정도서 소개에는 어린이 도서에 어린이 기자단 금재린 어린이, 청소년 도서에 전년도 청소년 대상 창의인재 부문 수상자인 배소울 학생, 성인 도서 소개는 '오늘 보는 그제 뉴-쓰'의 저자 박창원 작가가 참여했다.

2부 북 콘서트에서는 '오늘 보는 그제 뉴-쓰'의 박창원 작가를 초청해 1945년~1950년 매체로 단조로웠던 때 신문 기사를 통해 그 당시 대구의 이슈와 주민들의 일상을 소개했다.

윤근수/기자



아울러, 2024 대구 올해의 책은 관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시내 대형서점 등에서 만날 수 있으며, 교보문고(대구점, 칠곡센터), 영풍문고(롯데백화점 대구점)에서는 10% 현장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에는 올해의 책으로 구·군 작은도서관과 초·중·고 독서동아리 독서 릴레이를 진행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김중찬 대구광역시 대학정책국장은 "대구시가 시민들이 독서를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일상을 만들어 가는 데 힘이 되어드리겠다"며, "많은 분들이 대구 올해의 책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느껴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함께하는 문화관광, 꽃 피우는 상생 경제

윤경희 청송군수, '불거리·줄길거리·먹거리가 공존하고, 사람의 숨결까지 아우러진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 관광 도시 청송군' 만들고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려 관광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

청송군은 올해 다양한 관광 시책사업을 추진해 '함께하는 문화관광, 상생하는 산소카페 청송군'조성에 나선다. 최근, 지금까지 유명세를 떨치던 관광지보다는 관광객이 몰리지 않는 여정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오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고택이 즐비하고 다양한 지질 현상이 만들어 내는 깨끗한 생태환경이 보존되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관광객 눈길을 사로잡는 대표적 체류형 관광도시로 각광 받고 있다.

청송군은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관광 사업을 통해 청송군의 특성을 살린 문화 관광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산소카페 청송군'의 차별된 청정 자연과 유서 깊은 전통문화, 참신하고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를 융합하여 한층 많아진 관광수요에 부합하는 지역 관광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갈 전략을 세웠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불거리, 줄길거리, 먹거리가 공존하고, 사람의 숨결까지 아우러진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 관광 도시 청송군' 만들고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려 관광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금정구 금사회동동, 쾌적한 주거환경 지원 무료 세탁 사업 추진

부산시 금정구 금사회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뽀송이 무료 세탁 사업'을 4월부터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은 지난 29일 사회적협동조합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세탁편의점'과 업무협약을 맺고, 인적 안전망이 발굴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협약기관에서

세탁물을 수거 및 배송하면서 대상자의 안부도 확인하는 일거양득 사업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배재석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이웃 돌봄 사업을 지속해서 마련해 취약계층의 쾌적한 환경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영양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320명 첫 입국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에 큰 도움 기대 오도창 영양군수, "농가주와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지원과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히

영양군은 베트남 화방군으로부터 MOU체결 방식에 의한 1차 280명, 2차 40명 총 320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대구 및 청주공항을 통해 지난 4.(목)부터 오는 11.(목)까지 5회에 걸쳐 입국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농가의 희망시기를 최대한 고려하여 농번기에 맞춰 들어오며, 주요 준수사항 및 안내사항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농가에 배정될 계획이다.

배정된 근로자 중 1차의 경우는 E-8 비자로 기본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2차의 경우는 C-4 비자로 90일간 농가에 머물면서 파종·경작 등의 일손이 부족한 농작업을 수행하며 우리 군의 우수한 농업기술 또한 배우게 된다.

이들 중 E-8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 당일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마약검사를 실시하며, 이후 3개월 이내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군에서는 마약검사비, 외국인 등록 수수료, 산재보험료 지원, 부식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



로조건과 인권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고추 파종기를 맞아 입국하게 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덕분에 우리군의 일손 부족 해결과 인

건부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농가주와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지원과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꽃내음 가득한 전남도에서 봄나들이 즐기세요

전남도, 섬진강벚꽃길·불갑사·관매도·함평천지길 등 추천

전라남도가 4월 완전한 봄을 만끽할 여행지로 곡성·구례 섬진강벚꽃길, 영광 불갑사, 진도 관매도, 함평 천지길을 이달의 관광지로 추천했다.

섬진강 상류 곡성 섬진강 전문대에서 시작하는 섬진강 벚꽃길은 강을 사이에 두고 구례구역까지 이어진다.

이 벚꽃길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됐다.

섬진강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벚꽃 가로수가 터널을 이뤄 훑날리는 벚꽃잎을 감상하며 풍광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섬진강은 우리나라 5대강 중 하나로, 은어를 비롯해 30여 종의 담수어가 서식하고 있어 주변 식당에선 은어회와 은어구이, 참게를 곁들인 민물매운탕 등도 맛볼 수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진도 관매도는 해시절벽과 해식동굴이 아름다운 섬이다.

특히 넓은 유류 농경지를 활용한 유채꽃밭은 매년 상춘객으로 가득하다.

진도 일원에서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유채꽃 축제가 열린다.

사생대회, 사진공모전, 떡메치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고운 모래사장 해변과 드넓은 소나무 숲, 다양한 설화가 담긴 방아섬, 활미중드랭이굴, 하늘다리, 서들바 굴폭포 등 관매도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8경은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또한 툇칼갈수, 툇짜장 등 진도의 정취를 느낄 음식을 맛보며 오감 만족 봄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영광 불갑사부터 불갑수변공원까지 이어지는 벚꽃길도 벚꽃 명소다. 이 길목의 벚꽃나무 가로수는 터널을 이뤄 드라이브를 즐기며 벚꽃을 감상하는 상춘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불갑수변공원은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을 감상하며 산책하기 좋아 지역 주민도 인정하는 산책 명소다.

황금빛 노을 풍광이 아름다운 백수해안도로 가로 벚꽃도 아름답다.

16.8km의 해안도로는 기암괴석, 광활한 갯벌 풍경과 함께 훑날리는 벚꽃을 감상하며 드라이브하기 제격이다.

해안도로 아래 3.5km 해안 노을길과 노을 전시관을 둘러보며 서해안 풍광 여행의 낭만으로 만끽할 수 있다.

함평천지길은 화양근린공원과 생태습지로 조성된 함평천생태습지, 도시공원 현대인 엑스포공원을 연결하는 6km의 도보길이다. 삼나무 숲을 따라 산책을 즐길 수 있으며, 수산봉 정상에서 함평읍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수산봉 숲속 돌레길, 나비다리, 낙우송길, 장미정원, 소나무길, 등나무길 등 다양한 꽃과 나무로 꾸미진 정원을 감상하며 산책을 즐길 수 있다.

함평엑스포공원에서는 오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함평나비대축제가 열린다. 형형색색의 꽃밭을 날아다니는 나비를 감상하며 자연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나비 날리기, 나비 손수건 만들기, 비눗방울놀이, 젖소목장 나들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축제를 알차게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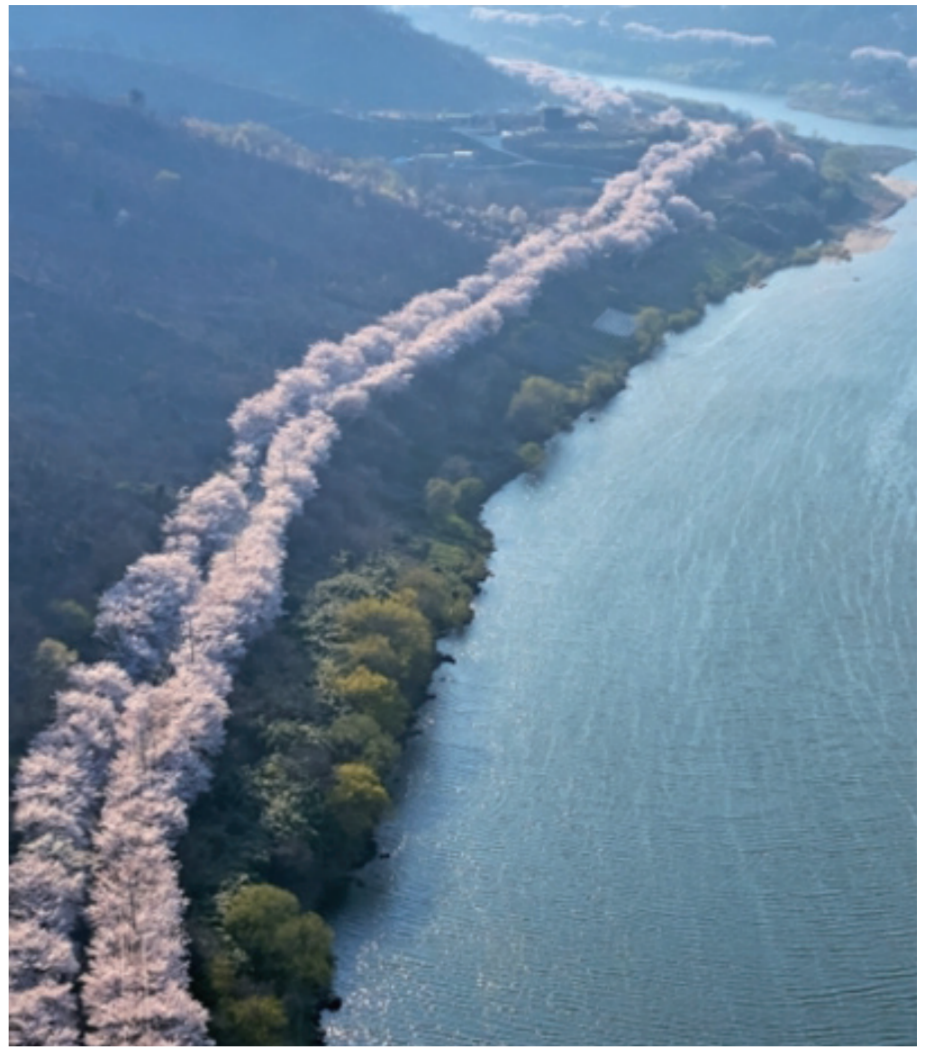
관광지, 체험·교통·숙박·맛집 정보 확인과 예약·결제 가능한 전남관광플랫폼(JNTOUR)을 이용하면 전남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다.

4월 중순부터 남도 숙박 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전남도·광주시 외 주소를 둔 관광객에게 숙박 요금을 할인하는 이벤트로, 전남관광플랫폼에 등록된 숙박시설(1천706개소) 이용 시 1박 기준 10만 원 이상은 4만 원, 7만 원 이상은 3만 원, 7만원 미만은 2만 원의 할인 혜택이 있다.

주수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전남은 한반도의 서남부에 위치, 산림·해양 자원이 풍부해 계절별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많다"며 "화사한 불꽃과 어우러진 전남의 풍광을 감상하면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안전한 봄 날씨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함평군 손불면, 봄바람처럼 따스한 온정의 주거환경 개선 '앞장'

손불면지사체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협력, 지적장애 가구 주거 개선

전남 함평군 손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지적장애 가구를 방문해 욕실 개선, 도배·장판 교체, 집안청소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손불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조직된 민·관 협력 봉사대로, 이번 봉사활동에서 손불면 지역사회협의체와 협력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도움을 받은 장애 가족은 "이전까지는 벽지·장판에 곰팡이가 생겨도 참고 살았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손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백형갑 민간위원장은 "동네의 소중한 어려움

이 발생할 때마다 자기 일처럼 삼피고 앞장서는 복지기동대의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복지기동대의 이웃사랑 봉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성풍 복지기동대장은 "앞으로도 이웃에게 더욱 관심을 두고 지역의 복지사가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자발적 민간 참여 단체로 지역 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불편 해소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주민의 미래 생활 기반 마련으로 삶의 희망을 함께 지원하고자 하는 민·관 협력 봉사단체이다.

김영진/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강도 높은 봄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조류인플루엔자 청정 지역'을 사수하고 있다.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에 31건이 발생한 가운데, 나주시는 '제로(0) 발생'을 유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나주시, 봄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총력

11개월간 'AI 청정 나주' 유지

나주시는 가금 1139만5000수 사육이 가능한 전남 최대 가금 생산지다. 전국 오리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인플루엔자 방역이 쉽지 않은 환경임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방역체계를 가동해 11개월간 '청정 나주'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험농가 55호를 사육제한했으며, 농장입구 및 진입로·철새도래지·산란계 밀집단지를 상

시 소독하고 있다. 또한 농장 자체방역을 위해 소독약 및 생석회·조류기피제 배부, SNS·카카오톡 홍보, 농장 전담 공무원 105명 배치, 재입식 농가 대상 3단계 점검 등에 나서고 있다.

나주시는 아울러, 가금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 갈아신기, '축사환경·소독의 날'(매주 수요일) 집중 소독, 가축 재입식 전 청소·소독

과 시설 점검 등의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철과 철새 북상 시기가 겹치면서 산발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AI와 같은 재난형 질병 차단은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평상시에도 축사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남원시 추어 및 식품산업 관련분야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4 남원추어 차세대 CEO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고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4 남원추어 차세대 CEO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고

'남원추어 차세대 CEO 아카데미'개최

남원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남원추어 CEO 육성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식품클러스터 사업의 하나인 남원추어식품클러스터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남원추어 차세대 CEO 아카데미는 남원시와 남원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의 3단계 추어 아카데미 프로젝트를 중 2단계 교육으로 남원시의 미래를 책임질 남원시 청년 CEO들의 네트워크 확장 및 경영능력 배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며 지난 4월 2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6월까지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2024년 아카데미는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2024년 식생활 트렌드와 차세대 CEO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주)이마트 가공식품분야 임원의 특강을 시작으로 SNS 홍보마케팅을 위한 촬영편집기법, 온

라인마케팅 실무, 사례 중심 노무교육, 세무회계 실무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생들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교육생 참여범위를 추어산업에서 식품산업으로 확대하고 수업 외에 교육생들간 모임을 지원하고, 아카데미 수료생들의 선진지 견학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정희 사업단장은 "평균나이 31세인 젊은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준비해 차세대 CEO들의 경영능력을 배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고, 유수경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장은 "교육생들이 남원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순천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영향들 최종 확정..입지 논란 마무리 지어

월 2일 입지 결정·고시...입지선정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적법하게 마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일 신규 폐기물처리시설(공공자원화시설) 입지로 영향들 814-25 일원을 최종 결정·고시했다.

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주민친화시설을 갖춘 지역의 명소로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영향들 814-25 일원을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최종 확정하여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 영향들 일원을 공공자원화시설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고, 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기, 약취, 수질, 토양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전략한 경영합평가를 실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도 환경영향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으며 공공자원화시설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또한 확인받았다.

입지 결정·고시에 따른 입지 지형도

이승준/기자

면과 토지조서는 순천시 청소자원과 및 순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4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기술이 고도화되고 최첨단으로 발전한 만큼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고의 기술과 설비를 도입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건설하여 지역의 명소로 조성할 것"이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입지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받은 만큼 더 이상 입지에 대한 논란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관규 순천시장은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은 시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향후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도군, 복지사가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사례관리 위한 전산교육 실시

사회보장정보체계 '행복e음'...읍면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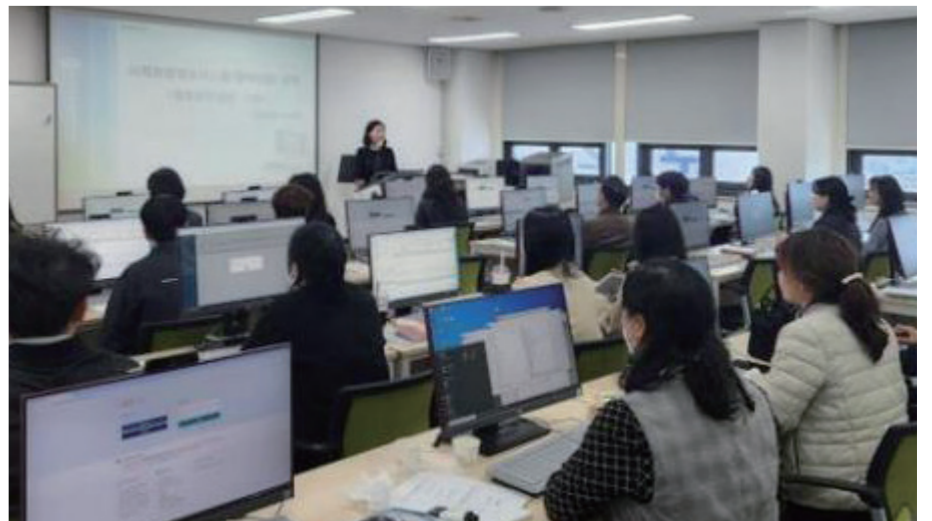
진도군이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복지사가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빈틈없는 사례관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체계 '행복e음' 사용자 전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전문강사를 초청해 새롭게 도입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체계 '행복e음'의 주요 내용과 초기상담, 신청정보등록, 효과적인 통합사례관리 등을 알기쉽게 설명했다.

특히 통합사례관리는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군민에게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등 복지 체감도 향상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 요구를 가진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부터 종결시까지 10단계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자원의 통합적인 연계와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먼저 실시했던 읍면의 찾아가는 복지교육과 연석회의, 이번에 실시한 전산교육을 통해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기대한다"며 "지역의 복지위기가구를 위해 소외되고 차별받지 않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모두가 행복한 진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충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적용률 50% 넘었다

도 감사위 적정공사비 적용실태 점검 결과, 전년대비 8.06% 상승한 56.52% 기록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2023년 소규모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적용실태' 점검 결과, 처음으로 적용률이 50%를 초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도 감사위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 시공 및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2020년 전국 최초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 2021년부터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5개 시군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발주한 5000만원 이하 건설공사 1674건을 표본조사했으며, 지난해 대비 8.06%p 상승한 56.52%로 집계됐다.

도는 그동안 점검에서 50% 미만의 적용률과 2% 미만의 향상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점검에서 1위를 차지한 서천군은 13개 읍면 중 10개 읍면에 시설직(토목직렬) 직원이 없음에도 군청 시설직 직원들의 추가 업무부담과 관심도 덕분에 설계기준 적용률 79.61%를 달성했다.

서천군을 비롯해 대부분 시군에서 설계기준 적용률이 상승한 반면, 청양군은 71.81%에서 55.28%로 16.53%p, 홍성군은 43.54%에서 38.32%로 5.22%p, 금산군은 61.62%에서 60.95%로 0.67%p 하락했다.

적용률이 가장 낮은 시군은 24.02%를 기록한 부여군으로, 전년대비 적용률은 9.55% 상승했으나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도 감사위는 적용률 하락 원인으로 예산에 맞춰 공사비를 짜맞추는 식의 단일한 업무방식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도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공감부족을 꼽았다.

대책으로는 읍면 등 최하위 조직까지 설계기준을 배포해 홍보를 강화하고, 적용률 하위 시군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결과공개를 통해 단체장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고 사망자 57명 중 건설업 사망자는 31명으로 54.4%를 차지하고 있다.

31명 중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은 19명으로 61.3%, 1억원 이하 사업장의 비율도 29%로 확인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2년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 내 계속된 화두인 품질·안전 향상과 산업육성은 적정공사비 확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건설공사의 건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감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벤치마킹해 2021년 제도개선 권고(지역 중소기업 권익보호 방안)사항으로 '발주기관별 소규모 공공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하도록 전국에 확대 전파됐다.

최정근/기자

아산시, 취약계층 및 경로당 방역소독 서비스 지원

(사)두리장애인복지회와 방역소독 업무협약



아산시는 2일 시장실에서 (사)두리장애인복지회(회장 고준희)와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및 경로당 방역소독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사)두리장애인복지회 두리두리사업단이 해중, 약취 등 환경오염에 노출된 취약계층 가정과 경로당에 방역소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유해 환경 제거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고준희 회장은 "협약을 통해 위생 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 가정과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에 살충·살균 소독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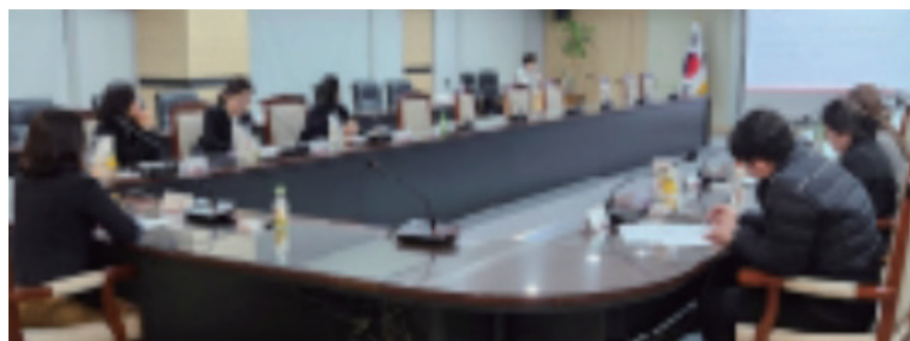
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경규 시장은 "(사)두리장애인복지회의 활약으로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다양한 나눔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아산이 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2016년 10월에 설립된 사단법인 두리장애인복지회는 소독·방역·건물위생관리업을 주 분야로 활동 중인 두리두리사업단을 비롯해 쓰레기 용기와 종량제봉투를 제작·판매하는 두리다담사업단, 판촉·인쇄물 제작 및 원격 자동검침시스템을 설치·관리하는 두리스마트사업단을 운영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 및 헌물 기부, 방역소독 지원 등 꾸준한 사회헌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원호/기자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4년 제1차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개최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9일 원주시청 7층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실무위원, 담당자 등 총 12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는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원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소개, 위기청소년 지원 사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진혜숙 센터장은 "청소년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유형의 위기 취약 청소년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연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업 중단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디지털미디어 피해청소년 회복지원사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범도민 생활방역 실천운동, 충북 도민 함께해요!

충북도, 대상자 맞춤형 감염병예방 교육 및 체험으로 생활방역 정착



충북도는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화를 위해 충청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 및 시·군과 공동으로 범도민 생활방역 실천운동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범도민 생활방역 실천운동을 통하여 도민에게 개인

위생수칙 준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5~6월에는 도내 어린이집·유치원 74개소를 대상으로 11회의 '감염병 예방 인형극'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감염병 및 예방수칙에 대하여 보다

쉽고 재미있게 습득 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한다.

아울러, 11월 까지 교육지원청, 노인복지관, 산업체 등과 적극 연계하여 학생, 성인, 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및 뷰박스 ATP를 활용한 손위생 체험 활동을 추진하고, 도내 지역 축제 행사 시 감염병 예방 체험 부스를 설치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엄격하게 유지된 방역체계가 완화된 이후,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기후변화 및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신종 감염병 국내유입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생활속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실내환기를 생활화하는 등 생활방역 실천운동이 정착되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정화/기자

'2024년 스포츠 재도약 태백시, 4월에도 스포츠대회 잇따라 개최

'스포츠 메카' 태백시는 4월에도 전국·도 단위 및 시 단위 스포츠대회를 풍성하게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중 개최하는 대회는 총 7개로, 먼저 '전국 중별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2일부터 10일까지 9일 간 고원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회 일정 중 2일부터 6일까지는 중등부 겨루기 경기가 열리며, 7일부터 10일까지는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품새 경기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출전 선수 2,800여 명과 지도자, 학부모,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로, 경기 인원을 포함한 많은 태권도 관계자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권도 대회 종료 후 '전국 대학 핸드볼 통합리그 대회'가 12일부터 21일까지 9일 간 고원체육관에서 개최되며, 대학부 13팀 300여 명의 선수를 포함한 많은 대회 관계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동점동에 위치한 태백스피드웨이에서 20일부터 21일까지 2일 간 '2024년 태백시장배 스피드 페스티벌 1차전'과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간



'2024 태백 트랙 페스티벌 1차전'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1차전 경기를 시작으로 향후 스피드 페스티벌은 4회 경기가, 트랙 페스티벌은 5회 경기가 추가로 개최될 예정이다.

시 단위 대회로는 '제27회 태백시협회장기 테니스대회'가 6일부터 7일까지 2일 간 태백스포츠파크에서 열린다.

또한, 고원1구장에서 '제15회 태백시협회장배 T리그 축구대회'가 4월 6일에 개막하여 10월 27일까지 7개월 간 치열한 순위경쟁을 하며, 스포츠파

크 야구장에서 '태백시 사회인 야구리그'가 4월 7일 개막하여 11월 3일까지 7개월 간 리그전으로 야구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시는 2024년 4월 현재 전국 및 도단위 56개 대회 개최가 확정됐으며 추후 추경예산 확보를 통한 2개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대규모 스포츠대회의 개최로 체육관계자들이 태백을 자주 방문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보성 다향 대추제

보성의 프리미엄 차(茶)의 유혹

2024. 5. 3. (금) ~ 5. 7. (화)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보성 차(茶)를 활용한 공식행사, 특별행사, 기획행사, 차 문화체험, 전시 / 경연, 공연 등

제47회 보성군민의 날
5. 3. (금) 보성공설운동장
군민 화합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

제19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5. 4. (토) 8:00 ~ 16:00
보성공설운동장
출.입부: 10km, 5km

제102회 어린이날 행사
5. 5. (일) 보성군 일원
먹거리, 체험마당, 놀이마당 등

제20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5. 4. (토) ~ 5. 6. (일)
용치면 용반리 일림산 일원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5. 4. (토) ~ 5. 6. (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일원
전국 판소리 · 고수 경연대회, 추모제

2024 한국유티미스트 전국요트대회
5. 4. (토) ~ 5. 5. (일)
물포출발해수욕장
2개 종목 12개팀(유티미스트 10, 토타크 2)

제2회 보성데일리콘서트 with 드론소
5. 4. (토) ~ 5. 6. (일)
농협마트 주차장(보성역 옆)

- 주최 / 주관 보성차생산지 조합 | 보성다향대추제추진위원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전라남도 | 보성군 |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협회

※ 축제 일정 및 행사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북도,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지원센터 설립 본격 나서

SMR산업 육성 위해 소재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과 손잡아 사업비 277억원, SMR 제작지원 기반구축을 통한 소부장 기업 지원



도가 2일 경주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 산단의 초기 조성과 SMR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부의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SMR 지원센터 설립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97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SMR 제작 지원센터설립 사업은 경

주 SMR 국가산단의 초기 조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사업비 277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SMR 제작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SMR 제작 지원센터는 SMR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제작을 위한 하이브리드 3D프린터 등 12종의 제작 장비를 구축하고 SMR 시제품 생산지원, 전문인력 양성, 애로 기술지원 등 SMR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

이번 구축 사업은 글로벌 종합 소재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포스텍, 대한전기협회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경북도와 경주시가 설립을 지원하는 등 SMR 관련 산·학·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주관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은 원전 기자재 제작 및 건설, 운영, 정비 등 기술 검증을 위한 원자력 공인 검사단을 자체 운영한다.

연구원은 SMR용 고강도 스테인리스강(XM-19), 고내열 니켈합금 등 특수소재 분야 연구에 집중하고, SMR 상용화 기술, 경제성 확보를 위한 3D프린팅, 특수용접, PM-HIP 등 혁신제조 기술 개발도 한다.

최근 정부가 원전 생태계의 완전 복

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원전 일감 확대,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특히 SMR,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이에 발맞추어 경북도는 경주 감포읍에 건설 중인 국내 SMR 연구개발 전담 기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을 2025년까지 완료하고, 교육용 연구로, 공동 R&D 센터 등을 갖춘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을 추진해 SMR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용융염원자로(MSR), 소동고속냉각로(SFR) 등 4세대 원전 관련 신규 국책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경주 SMR 국가산단을 글로벌 SMR 원전 시장 선점을 위한 고도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경주 SMR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SMR 제작 지원센터는 반드시 원전 지역인 경북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청도군, 2024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청도군은 오는 30일까지 2024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안전한 먹거리, 차별화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군에서 지정·관리한다. 청도군에는 현재 5곳이 지정돼 있다. 모집대상은 청도군에 소재하는 음식

점, 이미용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 소이다.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및 법인사업자,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도군은 가격, 위생 및 청결 등 평가 항목의 평점 총합이 만점 55점 중 40점 이상인 업소 가운데 지원이 필

요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함께 쌀, 종량제봉투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은 청도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청도군 경제산림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동현/기자

평일엔 아이조아, 주말엔 군위조아

군위군, 가족이 함께하는 양육 환경 조성에 앞장서다

군위군이 아이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다. 평일에는 지난 3월 21일 개소한 군위군 보건소의 아이조아센터에서 임신, 출산뿐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의 야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채로운 시설 방문을 권장하고 있다.



▲평일엔 아이조아센터에서 재미와 건강을 동시에!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총체적 보건서비스를 담당하는 군위군 보건소의 아이조아센터는 지난 3월 21일 개소하여 현재까지 순풍을 타고 운영 중이다. 아이조아센터에는 각종 모자보건사업들을 총괄하는 모자보건실, 각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실, 출산육아용품 대여할 수 있는 출산육아용품실, 영유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체험놀이실 등이 있다. 특히, 체험놀이실의 일평균 이용자수는 21~22명으로 아이조아센터 운영 시작과 동시에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오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체견학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실에서 영유아들의 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체험놀이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후에는 주로 가족단위로 방문한다. 아이조아센터의 체험놀이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11시40분, 오후 1시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1~6세까지 보호자를 동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체험놀이실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끄럼틀, 뽕뽕이를 비롯한 각종 놀이

기구, 주방놀이, 블록놀이, 낚시놀이 등이 있다. 아이조아센터 관계자는 "체험놀이실 이용뿐만 아니라 초보 엄마아빠, 영유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며, "행복한 임신, 안전한 출산, 건강한 육아를 위하여 아이조아센터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말엔 군위 나들이로 재미와 교육을 동시에! 아이조아센터는 가족 모두가 함께 행복한 양육을 지향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유도하기 위해 주말에는 야외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군위군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으로, '삼국유사 테마파크'에서 우리나라 역사적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으며, '엄마아빠 어렸을적에'는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라온 이야기마을'에서는 전통 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의 뿌리를 되새겨볼 수 있으며, '위천수변테마공원'에서는 가족이 함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군위군의 명소 방문을 통해 아이들에게 역사와 자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도록 안내하고 있다. 군위군수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 군위군에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위군은 앞으로도 아이들과 가족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김동현/기자

'만복 오미자생전통주' 2년 연속 대한민국 주류대상 수상

이상화 대표, 장인정신 계승과 전통 제조기법 가치창출 공로



마성면 소재 문경새재양조장이 올해도 일을 냈다. 문경새재양조장의 주력 제품인 '만복 오미자 생전통주'가 대한민국 주류계의 최고 영예를 안았다. 2023년에도 '만복 생전통주'가 대상의 영예를 안은데 이어 올해도 '우리 술 탁주 생강떡갈리 전통주류' 부문에서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우수성과 전통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대한민국 주류대상은 우수한 주류를 발굴하여 소비자들에게 소개하여 국내

주류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명망 높은 행사다. 입소문을 타면서 올해는 218개업체에서 1,061종의 주류를 출품하여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만복 오미자생전통주'가 최고의 막걸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만복 오미자생전통주'는 고유의 장인정신과 전통 제조법을 바탕으로, 청정 문경의 자연 환경에서 정성스럽게 생산되고 있다. 100% 국내산 쌀만을 사용하여 품미가 일품이며, 오미자를

첨가하여 향과 달콤함, 그리고 순수하고 깨끗한 맛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상화 문경새재양조장 대표는 "2년 연속 대상 수상은 만복 생전통주가 가진 전통의 가치와 품질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혁신을 통해 전통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현/기자

경산시, KT컨소시엄과 스마트도시 조성 상호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경산시는 지난 4일 시청에서 (주)KT, (주)POSCO 등과 함께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산시와 공동 참여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공동 참여를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경산시를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의 표준으로 만드는 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청년과 시민참여 중심의 경산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협력, 산업지원을 위한 SW 인재 양성 및 창업 활성화,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형 특화솔루션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경산시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시민 중심의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를 구성하고 '청년과 도시를 잇는 스마트 ICT허브 경산'의 비전을 담은 경산시 스마트도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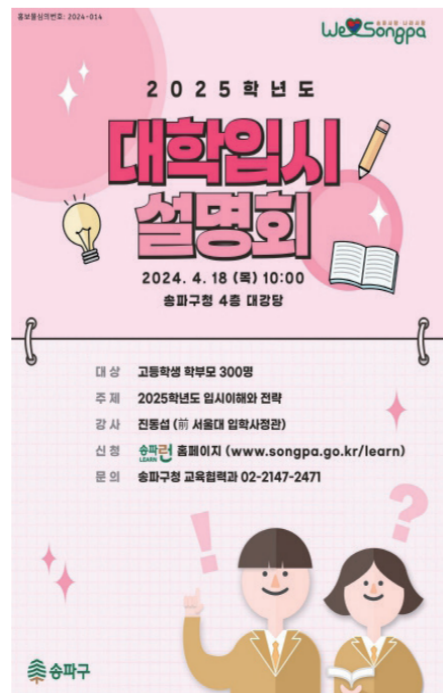
(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은 경산이 미래 첨단도시로 도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만큼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최고 기업들과 함께 우리 시가 가진 특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청년이 취업과 창업을 꿈꾸는 도시, 경산시민 누구나 스마트도시의 혜택을 누리는 경산형 스마트도시 건설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광삼/기자

송파구, '스카이캐슬' 실존 입시코디 진동섭 강사와 함께 2025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송파구가 오는 4월 18일 10시에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드라마 'SKY캐슬'의 실존 입시코디로 유명한 진동섭 강사와 함께하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고민과 불안감을 덜고 대학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입시 전문 강사들을 초청하여, 총 5차에 걸쳐 2025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1차 설명회는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 출신의 최고 입시 전문가인 진동섭 한국진로진학정보연구원 이사를 강사로 초청해 빠르게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맞춘 학습전략과 합격 비결을 전할 예정이다. 진동섭 강사는 현재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드라마 'SKY캐슬'속 입시컨설턴트의 실제 모델로도 유명하다. ▲전년도 입시사례

분석 ▲2025학년도 입시제도 및 변경 내용 ▲학년별 준비사항 등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한다. 이어 6월 2차 설명회는 '고교입시 이해와 전략'을 주제로, 7월 3차 설명회에서는 '수시 대비 점검'을 주제로 성공적인 입시전략을 세우도록 안내하고, 9월 4차 설명회는 모의고사평가 분석을 통해 수시지원 전략을 제공하고, 12월 5차 설명회에서는 수능결과 분석과 정시 지원을 위한 핵심전략 및 최종사항을 전한다. 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송파구 고등학생이나 학부모는 4월 5일 9시부터 송파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순 300명 모집이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송파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강연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희수/기자



서울시 혁신기업, 대만 SCSE서 약 397억 원 수출 상담 성과 창출

서울디지털재단,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 스마트도시 전시회 'SCSE'서 '서울관' 운영



지난 19일부터 4일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스마트도시 전시회인 '2024 스마트 시티 서밋&엑스포(Smart City Summit&Expo, SCSE)'가 22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SCSE'는 매년 3월 대만에서 개최되는 스마트시티 전시회다. 11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는 46개국, 112개 도시, 85명의 시장·부시장이 참석하며 방문객이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SCSE'는 매년 3월 대만에서 개최되는 스마트시티 전시회다. 11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는 46개국, 112개 도시, 85명의 시장·부시장이 참석하며 방문객이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SCSE'에 참가해 '서울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혁신기업 5개사와 함께 4일간 수출 상담 451건, 상담 금액 2,950만 달러(한화 약 397억 원) 규모의 성과를 얻었다.

'서울관'에 참여한 혁신기업 5개사는 ▲ 인공지능(AI) 기반 산업협업 안전 관리 솔루션의 '공간의 파티' ▲ 인공 지능(AI) 기반 산업협업 안전 관리 솔루션의 '공간의 파티' ▲ 인공 지능(AI) 기반 산업협업 안전 관리 솔루션의 '공간의 파티' ▲ 인공 지능(AI) 기반 산업협업 안전 관리 솔루션의 '공간의 파티' ▲ 인공 지능(AI) 기반 산업협업 안전 관리 솔루션의 '공간의 파티'

지열재단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바닥형 보행 신호등 솔루션을 가진 '에이원트랙픽알앤디'의 임형렬 회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신호등을 건너는 스몸비(smombie)와 같은 도시 문제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중요한 해결 이슈임을 깨달았다"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위해 솔루션을 해외에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솔루션 전시 외에도, 서울관 참가 기업들은 '스마트 서울 기업 투자 설명회(IR) 피칭데이', '서울관 VIP 솔루션 투어 및 네트워킹' 등을 통해 서울시 솔루션의 경쟁력을 전 세계로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참여 기업 지원과 별도로 영국, 헝가리, 슬로바키아, 일본 등 전 세계 도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서울시 디지털 정책 홍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

특히, ▲ 잭 차오(Jack Chao) 타이베이 시 최고데이터책임자(CDO) ▲ 람 응우옌 하이 롱(Lam Nguyen Hai Long) 호치민 컴퓨터 협회장 ▲ 앨런 존 쿠(Allen John Ku) 대만 스타트업 아일랜드 총괄 디렉터 등과 양 기업 상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서울디지털재단은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 스마트라이프 워크(SLW)'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타이베이 장광안 시장 등에게 SLW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고 행사 참여를 독려했다.

'서울 스마트 라이프 워크'는 서울시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중심으로 도시·기업 간 첨단 스마트 도시 기술을 교류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SCSE'는 단순히 기술 교류를 위한 비즈니스의 장을 넘어서, 전 세계 도시 및 기업 관계자가 모여 미래 도시를 위한 논의를 나누는 글로벌 무대"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얻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올해 10월 SLW 행사 방문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尹 대통령, 지역 2차 병원인 청주 한국병원 방문해 현장 지키는 의료진 격려하고 현장의견 청취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6일 오후 지역 2차 병원인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 두발언에서 지역 의료 강화를 강조한 데 이어 오후 곧바로 지역 2차 병원을 방문한 것이다.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 가운데서도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 방호복, 방호모, 덧신을 착용하고 병원장의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에 입장했다. 대통령은 센터에 대해 간단히 소개받은 뒤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의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의 설명을 들었다. 대통령은 중증 환자의 전원을 위한 상급 병원의 네트워크에 대해 묻는 등 지역의 의료 현실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어 대통령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근무 중인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와 병상의 규모 등에 대해 물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병동을 떠나면서 대통령은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며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의 의료 현실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비상진료 체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필수의료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주 한국병원과 같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종합병원은 우리나라 의



료체계의 허리와 같은 존재라고 강조하고, 지역병원이 환자의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더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들은 비상 상황에서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병원 의료진들이 마음 놓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재승 병원장은 지역 의대 중심으로 의대 정원이 확대된 것에 대해 "역대 정원에서 하지 못 한 일이지만 미래를 위해 크 나큰 결단을 하신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송 원장은 "한국병원이 개원한 지 38년이 됐지만 의사 총원이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다"며 지역 위주로 의료 인력이 확대된다면 의사 총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외에도 의료진들은 ▲2차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분담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2차 의료기관 적정수가 보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수가 인상, ▲필수인력 대기비용 및 필수시설 유지비용 보상 등을 건의했다.

대통령은 "보건교를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고, 예산 편성 시 보건 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면서 "보건 의료 재정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현장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야 한다. 보건교로 예산이 먼저 편성돼야 나머지 예산 편성도 가능하다"며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호소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오늘 건의된 사항을 즉시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의료진과 적극 소통해 어떤 것부터 해결해 드리면 좋을지 의견을 청취하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지역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통령이 간담회를 마치고 병원을 나오자, 의료진이 입구에서 서서 대통령에게 "건강하시라" "힘내시라"고 응원했고 대통령은 "의료현장을 지켜주시고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다"고 답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송재승 병원장, 송민규 진료협력센터장, 이유희 심장·뇌혈관센터장, 송준우 기획총괄이사, 안경숙 간호이사 등 병원 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장,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배석했다.

최광수/기자

尹 대통령,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대통령,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방향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6일 오후 충북 청주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50년, 충북의 경제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성장동력으로 '첨단 바이오 산업'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여러 다자회의의 참석 때마다 각국 정상들이 '국가 미래 전략기술'로 첨단 바이오를 꼽았고, 지난해 4월 미국 국민방문 때 만난 MIT 석학들도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첨단 바이오를 꼽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글로벌 첨단 바이오 시장 규모가 2021년 기준 2조 달러에서 2035년에는 4조 달러(한화 약 5,200조 원)까지 확대된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첨단 바이오 선점에 나서는 만큼 우리도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첨단 바이오 산업의 도약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통적 바이오 기술을 소수의 서구 선진국들이 지배해 왔지만, AI와 디지털이 융합된 첨단 바이오로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에게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보유한 국가이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

빠르게 디지털 강국으로 전환한 기술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간 다져온 바이오 역량에 이를 잘 접목한다면 첨단 바이오 시대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먼저 첨단 바이오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인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은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나 디지털 치료제 등의 '디지털 바이오' 분야에 정부 R&D 투자를 대폭 늘리고,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도 만들어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첨단 바이오 기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디지털 마음건강 시대', ▲난치병 치료를 위한 혁신적 바이오의약품 개발,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진단·치료 및 역노화 기술 개발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또한 석유화학 기반 소재 산업을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해 다른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이끌고 기후 변화, 식량부족, 감염병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난제도 첨단 바이오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2020년 43조 원 수준이었던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대통령은 대학, 연구기관, 바이오 기업을 비롯해 법률, 금융, 회계 같은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이 모이는 'K-바이오스퀘어'를 조성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충북지역 의대 정원도 89명에서 300명으로 211명이 증원 예정됐다

며, 중원된 의사들이 지역에서 종사하면서 R&D 연구를 병행해 첨단 바이오 분야 발전에도 큰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충북에 이미 지정된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재생의료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를 새로 지정하는 등 충북의 도약을 위한 과제들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충북의 관광·교통 인프라 확충도 언급하며 ▲'동서트레일'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활성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첨단바이오와 함께 도약하는 충북', ▲'첨단산업과 관광으로 활력이 넘치는 충북' 등 3가지 주제로 충북지역 기업인, 대학생 및 출연연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과 시민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바이오 기술·산업 육성 방향, 첨단 바이오 기반의 충북의 발전 과제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충북의 교통·관광 인프라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내었다.

오늘 행사에는 최석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최원우 큐티스바이오 대표이사, 최원석 속리산둘레길 사무국장 등 대학생, 연구원, 기업인, 시민 등 국민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최광수/기자

2024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2024 Cheongsando Slow Walking Festival

氣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느리게
가어
봐

2024. 4. 6.(토) ~ 21.(일)
원도군 청산면 일원

주최 원도군 주관 청산도슬로걷기축제추진위원회

경남도지사, 제19회 창녕낙동강유채축제 참석, 황금빛 유채물결 개막, 환하게 밝혀

전국 단일면적 최대규모 유채꽃 향연, 7일까지 나흘간 개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5일 창녕 남지체육공원에서 열린 '제19회 창녕낙동강유채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축제가 되길 기원하며 개막을 축하했다.

축제는 「유채를 느끼GO, 유채를 즐GO」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4일 낙동강유채대제를 시작으로 7일까지 남지유채단지 및 남지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박 지사는 축제를 준비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낙동강과 유채꽃이 어우러진 절경이, 역시 경남의 대표 볼거리 축제답게 멋지다. 올해 축제는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축제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마음껏 즐기시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제가 열리는 낙동강 유채단지는 33

만 평에 이르는 단일면적 국내 최대 규모로, 경남의 대표 볼거리 명소이다. 특히 이번축제는 낙동강변을 잇는 유채물결의 장관과 함께 다채로운 볼거리·즐거거리가 준비되어 있어, 봄나들이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행사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꽃밭을 걷는 유채꽃 라디오편어령을 비롯하여 창녕 농부 아지매 선발대회, 우포따오기 탈 만들기, 유채꽃 압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며, 지역 특산물과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창녕 농특산물 판매관과 플라마켓 등도 운영한다.

한편 창녕낙동강유채 축제는 2006년에 시작되어 낙동강과 유채꽃이 어우러진 자연의 비경을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등 창녕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이어져오고 있다.

장재현/기자



청송군, 함께하는 문화관광, 꽃 피우는 상생 경제

청송군은 올해 다양한 관광 시책사업을 추진해 '함께하는 문화관광, 상생하는 산소카페 청송군' 조성에 나선다.

최근, 지금까지 유명세를 떨치던 관광지보다는 관광객이 몰리지 않는 여객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오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고택이 즐비하고 다양한 지질 현상이 만들어 내는 깨끗한 생태환경이 보존되어 있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청송군은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관광 사업을 통해 청송군의 특징을 살린 문화 관광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산소카페 청송군'의 차별된 청정 자연과 유서 깊은 전통문화, 참신하고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를 융합하여 한층 많아진 관광수요에 부합하는 지역 관광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갈 전략을 세웠다.

우선, '주산지관광지조성사업', '한옥스테이 사업', '골목 경제 회복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유동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시킬 복안을 가지고 있다. 특히 호텔과 클럽핑장을 갖춘 '이색 숙박시설을 조성'해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지역에 더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달기 약속탕 거리 환경 개선'과 메뉴 다양화로 관광객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관광정책 다변화를 통해 청송형 관광사업의 외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민들의 여가 생활과 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는 청송 아웃도어 골프장과 진보면과 산남지역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해 지역민들은 멀리 가지 않고 관광객들에게는 청송의 천혜의 자연에서 즐기는 공간 제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문화 관광 체험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청송을 대표하는 '청송사과축제'를 활용하여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나간다. 올해 개최되는 제18회 청송사과축제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 청송사과축제만의 특장점과 색깔을 담아내어 청송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청송군 내임블류에 걸맞은 최고의 사과축제를 준비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공존하고, 사람의 숨결까지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 관광 도시 청송군' 만들고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려 관광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해남군, 5월 4~6일 어린이날 연휴 해남 공룡대축제 개최

국내 최대 해남공룡박물관서 신나는 시간여행 떠나요 "가족사랑 프로그램 다채"

해남군은 오는 5월 4~6일 어린이날 연휴 3일간 해남 볼 대표축제인 해남 공룡대축제를 개최한다.

2회째를 맞는 해남 공룡대축제는 올해 '해남! 공룡이 살아있다'를 주제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공룡박물관 잔디광장에서는 어린이 공연과 공룡가족 버블 댄스타임, 마술쇼, 매직쇼 등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공연 행사가 3일내내 이어진다.

특히 5월 4일과 5일 저녁에는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공룡가족 음악회와 아름다운 불꽃쇼가 공룡박물관의 밤하늘을 수놓으며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야간 개장을 실시하는 것으로, 연휴기간 해남을 찾은 방문객들이 늦은 시간까지 공룡박물관의 살아 숨쉬는 콘텐츠를 한껏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축제장에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룡놀이터가 조성돼 25m 짜리라인과 에어바운스, 레일기차, 페달보트 등 신나는 놀이기구가 무료로 운영된다.

어린이와 가족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공룡박물관을 순환하는 공룡열차가



운영하고, 공룡을 찾아 떠나는 공룡발자국 탐험대, 공룡가족 운동회, 익룡을 잡아라 연날리기, RC카 체험과 더불어 공룡 관련 만들기 체험 등이 운영된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각종 공연과 함께 모범 어린이 표창, 전국 어린이공룡그림그리기 대회, 기념 퍼포먼스가 공룡박물관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군 관계자는 "해남 공룡박물관에서

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과 가족 소풍 공간을 준비했다."며 "온 가족이 해남의 살아 숨쉬는 공룡들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길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제가 열리는 해남공룡박물관은 400여점의 공룡 관련 화석과 희귀전시물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 전문박물관이다. 또한 공룡박물관이 소재한 황산면 우항리 공룡화석지는 천연기념물 394호로 지정되어 있다. 세계최대, 익룡 발자국 크기 (25~30cm)와 규모, 세계최초, 익룡, 공룡, 새발자국 화석이 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곳, 세계최고, 8300만년 전 생성된 물갈퀴새 발자국 화석이라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세계적인 공룡화석지이다. 박물관과 함께 330만㎡의 야외공원, 공룡발자국 보호각 등이 조성돼 가족단위 관광객들과 어린이 체험학습 장소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편 2023 해남 어린이 공룡대축제에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만 5,000여명의 관람객들이 축제장을 방문하면서 어린이와 공룡, 봄의 계절이 어우러진 축제로 성공적인 첫 출발을 알렸다.

최갑문/기자



영주시 감개무량 영주

산 뒤에 또 산, 그 뒤에 또 산마루, 눈길이 가는 데까지
그림보다 더 곱게 겹쳐진 능선들이
모두 이 무량수전을 향해 마련된 듯 싶어진다

출처: 최순우 저자의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차

영주 부석사

환동해의 새바람! 해양수산부 예산 확보 집중공약으로!

김학홍 행정부지사, 道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에 주력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3일 해수부장관이 주재하는 2025년 예산 사·도 협의회에 참석해 경북도 해양수산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역점사업을 소개하고 지역 여건 우수성, 사업추진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

이날 경북도는 관광, 해양과학, 항만 등 각 분야의 역점 사업을 선별해 국제 서핑 특화단지 조성추진 300억원, 심해 해양바이오뱅크 건립 272억원, 고래 바다쉼터 조성 180억원,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2단계 공사 94억원, 스마트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150억원 등 총 5건, 1천억원 규모를 건의했다.

도는 우선 경북 동해안 대표 서핑 명소인 포항 월포, 영덕 장사 해수욕장에 클럽하우스, 아카데미, 실내 서핑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는 국제 서핑 특화단지 조성 전략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구했으며, 또한 포스텍, KIOST, 심해과학센터 등 경북의 우수한 해양바이오 인프라와 연계한 동해 심해 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심해 해양바이오뱅크 건립을 건의했다.

에 맞춰 대형수족관 고래류 자연방사시 적응훈련과 표류·흔회되는 해양포유류의 구조·관리를 위한 고래 바다쉼터 조성 사업과 국제 여객수요 증가에 맞춰 해외 관광객 유치에 위한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2단계 공사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SNS 등 MZ세대의 新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어촌 지역 수산물 생산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공, 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스마트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적극적인 국비 건의 활동으로 해양수산분야에 10건의 신규사업과 34건의 계속사업을 포함해 총 44건의 국비 건의사업이 반영되어 2024년 국비 예산으로만 1,381억원을 확보했다.

대규모 공모사업에도 전략적인 대응으로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총사업비 380억원),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총사업비 490억원)이 선정된 바 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신규 역점사업 예산 확보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지방소멸, 저출생 등 범국가적 현안에 대응해 경북 해양수산이 앞장서 극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조현일 경산시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부2동 최고령 투표자와 함께 투표 참여

조현일 경산시장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서부2동 최고령 투표자인 송점순(100세) 할머니와 함께 투표에 참여했다.

오전 일찍 서부2동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조현일 시장과 송점순 할머니는 투표 과정을 통해 소중한 한 표의 의미와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투표를 마친 조현일 시장은 "서부2동 최고령 어르신과 함께 투표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모든 시민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며 모든 시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서부2동 최고령 투표자인 송점순 할머니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세상일에 무관심해져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관한 관심과 참여는 모든 세대의 책임이며, 젊은 세대들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투표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본 투표는 4월 10일이다. 경산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송광삼/기자



세종시, 행정서비스 디지털 혁신 선도도시로 우뚝 선다

구비서류 제로화 실증...연간 6.3만 명 원스톱 민원처리 혜택

세종특별자치시는 디지털 기술이 행정에 접목되고 융합되는 속도가 도시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세종시는 정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에 앞서 정책을 미리 점검하는 테스트베드 공간으로,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실증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첫걸음으로 시는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구비서류 제로화 및 디지털 민원혁신 가속화를 위한 협력 회의를 열고, 디지털 민원혁신 선도도시로 도약을 천명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행정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자 IT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시대적 과제라고 판단하고 올해 디지털 혁신 과제를 역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구비서류 제로화로 민원 불편 해소=시는 지난 28일 행정안전부와 구비서류 제로화 협력을 선언하고 '구비서류 제로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기로 선언했다.

이는 공무원이 직접 증명서를 확인해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제출하는 증명서를 없애는 제도다.

정부의 구비서류 제로화 일정(4월 100개, 12월 321개)에 맞춰 조례 개정, 민원처리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민 수혜사업을 대상으로 실명인증 및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한다.

주민 수혜사업은 아빠장려금, 농업인수당, 입학축하금 등 조례에 따른 수혜 서비스 일체로, 서비스가 구축되면 연 6만 3,000명의 민원인이 구비서류 발급·제출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 행정역량 강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이와 함께시는 공직자의 행정역량 강화와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해 연설문, 보도자료 작성 등에 인공지능(AI) 활용을 일상화한다.

이를 위해 4월부터 홍보, 사업계획 수립 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초거대 AI 활용 교육을 시작한다.

아울러, 민원 상담민 수준에 답변이 가능한 챗봇서비스인 가칭 'AI충녕'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 누리집, 민원콜센터의 민원 데이터를 인공지능 플랫폼에 학습하는 단계로, AI충녕 서비스가 정식으로 도입되면 단순 민원 30% 정도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플랫폼 기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강화=또한, 시는 '세종시티업', '세종엔', '똑똑건강' 플랫폼에 공공마이데이터를 적용하여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선 세종시티업은 지난달 15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56종의 전자증명서를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시민증 발급 서비스를 확대해 세미나 등 행사 시 출입을 인증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시민편의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똑똑건강 앱을 통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시민이 본인의 건강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내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오늘건강앱 및 노인 맞춤형 복지정책 거점 시설인

스마트경로당과의 데이터 연동을 통해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엔업은 초정밀 버스 도착정보, 긴급SOS, 시설물 예약, 여권 대기정보 등 지도 기반의 시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세종엔업에서는 AI영상 기술을 활용해 놀이터, 이음다리에서 시민체감형 실시간 혼잡도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특히 오는 5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기간에는 시민의 주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종엔업을 활용해 실시간 투표 대기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선도하는 혁신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구비서류 제로화와 AI충녕과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민 밀착형 행정혁신을 통해 도시 혁신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산소카페 청송에서 "리셋"(Re:set)

"물러가라! 코로나" 청정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 재충전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재선정된 주왕산과 주산지, 세계지질공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천혜의 신성계곡, 백일홍 만발한 청송의 새로운 랜드마크, 산소카페 청송정원...

산소카페 청송군은 일상에 지친 삶을 재충전하는 생태힐링관광의 대명사입니다.

리셋으로 리프레쉬!
힐링은 역시 산소카페 청송군입니다.



봄,

영양으로 GO!



제19회

영양산나물축제

YEONGYANG WILD EDIBLE GREENS FESTIVAL

5월 9일(목) - 12일(일) 영양읍내 / 일월산 일원



주최  영양군
YEONGYANG-GUN

주관  YFTF 영양축제관광재단
Yeongyang Festival & Tourism Foundation

딸기밭에 봄과 함께 우리도 왔어요!

안동 강남초병설유치원 원아 66명,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딸기따기 체험학습



안동강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아 66명은 지난 1일(월)부터 4일(목)까지 4일간, 풍산 대덕농장 에서 딸기따기 체험을 했다. 체험을 하러 가기전 체험장소와 교통 안전, 자연체험활동 시 지켜야 할 규칙을 알아보았다. 이번 딸기 따기 체험을 통해 수학의 기쁨을 느끼고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며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계획하였다. 딸기체험을 한 3세 유아는 "딸기가 진짜 맛있어요! 백개 먹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했고, 5세 유아는 "이거보세요! 대왕딸기를 내가 찾았어요. 선생님 맛있는지 드셔보세요."라며 딸기밭에서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체험을 했다. 이경순 원장은 "봄향기 가득한 날씨가 아이들이 자연에서 딸기를 따는 체험을 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덩달아 행복해 진다. 올 한해 더 행복한 일을 많이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윤근수/기자

2024학년도 포항 특수교육 운영계획 전달 연수 실시

포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체계 확립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 03일(수), 포항교육지원청 어울관에서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유.초.중.고등

학교 특수교육 업무 담당 교원 약 120명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운영계획 전달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2024학년도 포항 특수교육 운영계획, 특수교육대상학생 신규.재배치 업무 처리 방법,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해 안내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은 통합.특수교육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포항교육지원청 황영애 교육지원국장은 "날이 갈수록 새롭게 발전함을 뜻하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일심우일심(日心又日心)'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발전하는 특수교육 업무 담당자가 되어주길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윤근수/기자

칠곡 장곡초, 배움과 즐거움을 선물하는 요리 동아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요리 동아리 열어

장곡초등학교는 지난 3일부터 1~6학년 44명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0주에 걸친 요리 동아리를 운영한다. 요리 동아리는 학생들이 식재료를 직접 준비하고 다루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경험하고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첫 회기로, 식품 구성법을 통해 5대 영양소에 대해 알아본 후, 다양한 재료를 담은 카나페 간식을 만

들어 친구들과 나누어 먹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2학년 장OO 학생은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이 신기하고 재밌었다. 평상시에는 잘 하지 못하는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곡초등학교 강석중 교장은 "요리 동아리는 폭 넓은 배움의 장이다. 학생들이 요리 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신나는 배움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2024 제1기 학생들 한국전통문화 체험하다

경상북도교육청경주한국어교육센터 경주향교 체험학습 실시

한국어교육 중점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경상북도교육청경주한국어교육센터는 지난 5일(금), 제1기 위탁학생 70여명을 대상으로 경주향교 전통문화체험 학습을 실시하였다. 지난 달 18일, 입소한 1기 학생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매우 서툰 상황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경주향교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떡메치기, 다도, 국궁, 전통혼례, 서예 등

을 체험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소양을 높이고, 단체생활을 통한 호연지기와 협동심을 기르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온 1기 학생들은 모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전통문화를 체험하면서 한국의 아름다움에 반하고, 전통 붓글씨인 서예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특히 경주향교 손상규원장이 진행한 전통혼례 체험을 관람한 학생들은 전통혼례복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놀랐고 혼례식의 절차가 복잡하였지만 매우 의미있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김시용 센터장은 "벗꽃이 한창인 아름다운 봄날에 우리 아이들이 경주향교에서 특별한 전통프로그램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고 한국의 문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윤태용/기자



상주교육지원청 Wee센터, 2024년 1학기 상담주간 운영

상주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달 14일부터 지난 5일까지 한 달간, 신학기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2024년 1학기 학생·학부모 상담주간을 운영했다. 상주 Wee센터는 3월 한 달간 2024학년도 1학기 상담주간을 운영하며 학생 및 학부모 상담과 함께 학교폭력 피·가해자,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복교생, 전학은 온 학생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심리검사와 집단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했다. 1학기 상담주간을 통해 Wee센터

는 관내 6개 학교 약 500명의 학생에게 학교 적응을 위한 집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학기 상담주간 어울림 프로그램에 참가한 관내 초등학교 담당교사는 "학생들이 호우관계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친구들과 건강하게 어울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감상을 전했다. 겸상일 Wee센터장은 "학생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며 낯선 분위기 속에서 느끼는 설렘과 불안이 상담주간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해 해소되고 새로운 관계

가 긍정적으로 시작되기를 바란다."며 "이후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도 Wee센터가 역량을 발휘하여 심리적 지원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동현/기자



봉화도서관, '자녀교육, 부모 전문가 되기' 특강 운영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현안 정담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 봉화도서관은 급변하는 교육 패러다임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학부모의 자녀이해 및 교육역량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교육 학부모 아카데미' 특강을 운영한다. 오는 24일(수) 서경희 강사의 '아이와 갈등을 줄이는 내 아이 스마트폰 관리법' 특강을 시작으로 '자녀 독서교육의 모든 것', '내 아이를 위한 도움닫기, 진로 설계가 먼저다' 등의 다양한 주제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4~6월까지 매월 운영한다.

참가 신청은 지난 3일(수)부터 도서관 누리집(www.gbelib.kr/bh)을 통해 선착순 모집하고 있으며, 매회 신청을 받으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도서관(☎054-673-0973)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רח희 관장은 "자녀들의 교육과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특강에 관심있는 학부모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2024학년도 독도교육주간' 우리의 삶이 깃든 섬, 동해의 독도 바로알기

의성 탐리여자중학교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2024학년도 독도교육주간을 운영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영토 주권 의식을 고취하고자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천한다. 독도 북아트 대회, 독도 2행시, 독도행운권 퀴즈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여 학생들이 독도의 정확한 정보와 함께 홍보, 독도 사랑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특히 4월 5일에는 전교생이 독도 관련 각종 도안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개성이 돋보이는 독도 사랑 티셔츠를 만들었다. 4월 26일에는 전교생이 태극기 깃

발과 머리띠를 착용하고 매년 독도교육주간 마지막 행사로 실시하는 독도 플래시몹을 금성면 일대에서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추어 진행하여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역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독도교육주간 행사에 참여한 1학년 안OO학생은 "독도 플래시몹 준비를 하면서 독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체험, 활동 중심의 독도교육으로 재밌게 우리 땅 독도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기대했다.



정금자/기자

지구환경을 지켜 주는 나무야 고마워

성주초 급식시간 식목일 기념 행사 실시해

성주초등학교는 지난 5일(금), 급식시간 식목일 기념 행사를 실시하였다. 성주초등학교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식목일 기념 식단(케이크 포함)을 제공하고 식목일의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재국 교장은 "공휴일에서 제외된 식목일의 의미를 급식시간을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되새겨 보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학생들과 교직원은 "가족과 함께 나무를 꼭 심어 지구환경을 지키는데 동참해야겠다." "지구환경을 위해 식목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나무 심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영양교육지원청, 친구야 주말에는 마을학교에서 만나

2024 영양미래교육지구 마을학교 3교 개소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금), 교육장, 교육지원과장, 영양군 주민복지과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별천지 영양미래교육지구 마을학교 품(品), 핸드(Hands), 휴(休)의 개소식을 진행하였다. 행사에 앞서 영양교육지원청은 공모를 통해 3개의 마을학교를 선정하였

다. 원활한 마을학교 운영을 위해 마을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현황 및 시설들을 점검하여 학생들을 모집하는 등 마을학교 운영 준비를 마쳤다. 영양미래교육지구 내 마을학교 3교는 4월 첫 주말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각 마을학교별로 돌봄과 내부 프로그램 외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

다. 품(品)은 학생들에게 인기인 축구교실을, 핸드(Hands)는 우쿨렐레교실 및 만들기교실을, 휴(休)는 수비지역의 특색을 살려 자연과 숲 체험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한다.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는 "주변에 문화시설도 없고, 함께 놀 친구가 없어 주말이 되면 우리 마을 학생들이 갈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 안타까웠다. 이번 마을학교 운영으로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놀며 즐거운 주말을 보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유희 교육장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영양미래교육지구 마을학교 운영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 마을학교가 활발히 운영되어 우리 영양의 학생들이 주말과 방학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보고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에 도전합니다!

